

Women in Islam
(Refutation of some Common Misconceptions)

Prof. Dr. Abdurrahman Al-Sheha 저

최영길 옮김

역사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아랍어를 전공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이슬람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슬람학을 전공하고 수단 움두르만 이슬람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슬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젓다 이슬람문화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담당 전임교수로 근무하였고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대학교 초청객원교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중고등학교 아랍어 국정교과서 교재 편찬 심의위원, 숲사랑소년단 이사장, 국제자연환경 교육재단 이사장,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이슬람회의 기구 집행이사, 그리고 IMAX 벤처기업과 LG 전자 자문교수로 있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에서 이슬람관련 과목을 강의하였고 (재단법인)한국이슬람교 사무총장과 할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아랍지역과 명예교수, 메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이슬람 총연맹 최고회의의 위원, (재단법인)한국이슬람교 이사장, (사단법인)숲사랑소년단 이사, 관련기관 및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할랄과 이슬람문화, 할랄과 인증제도 강사로 있다.

저술 및 역서로는 꾸란의 의미 번역을 비롯하여 예언자 무함마드, 인간 무함마드,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무함마드의 언행록, 아랍어-한글 사전, 꾸란 어휘 사전, EBS 입에서 톡 아랍어, 이슬람문화, 아랍에서 출발한 이슬람역사와 문화,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이슬람 지식, 인생교과서 무함마드, 이슬람과 에티켓, 이슬람의 로맨스 등 74편의 아랍어와 이슬람 관련 역서와 저술을 두고 있다.

1970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 메달을 받았고,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아올림픽 조직위원회 포상, 200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 국제번역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표창 그리고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 2014년 12월 중순 경 일면일식도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사우드 대학교 압두라흐만 쉐하(Prof. Dr. Abdurrahman al-Sheha) 교수님의 국제전화 한 통화가 인연이 되어 그분께서 저술한 값진 네 권의 책을 우리 말로 번역하였다. 이 네 권의 책이 번역 출간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교수님을 상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주 가까운 동료 교수가 된 느낌이다. 만남 적은 없는데 마음으로는 오래된 옛 친구 같은 생각이 든다.

웃기만 스쳐도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는 말이 있듯이 전화 한 통화만 주고받아도 인연이 맺어지는 것 같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연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미래에 일어날 현상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까다(qada)와 까다르(qadar)라고 한다.

첫 번역서 『이슬람의 메시지와 에티켓』을 시작으로 『이슬람의 로맨스』, 『행복으로 가는 길』, 『시작과 끝』에 이어 이번에는 『이슬람과 여성의 위상』이란 제목으로 다섯 번째 책을 번역하였다. 다른 책들 번역에 들어가면서 그랬듯이 본서 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번역에 들어가

2016년 10월 3일 개천절 날 나의 조그마한 서재에서 초기 번역을 마칠 수 있었다.

저자는 꾸란과 언행록에 근거하여 시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위상, 이슬람사회에서의 남녀동등권, 여성의 권리와 의무, 여성 무슬림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일부다처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 결혼, 명예살인의 허와 실, 이혼, 유산을 받을 권리, 일할 권리, 베일문화 등 이슬람에서 여성 무슬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슬람문화사업, 특히 장학 사업에 끊임없는 후원을 아끼지 않는 고팔용 사장님과 어느 날 천사처럼 나타나 이슬람문화사업 후원을 약속하면서 5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달라고 일정금액을 위탁했으며 노트북까지 기증하여 주신 김희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서 번역도 김희상 선생님께서 기증하여 주신 노트북으로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본서는 다음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시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위상, 즉 이슬람 이전 아랍 사회의 여성, 인도 사회의 여성, 중국 사회의 여성, 그리스 사회의 여성, 로마 사회의 여성,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여성, 전통적 기독교 사회의 여성 그리고 현대 사회의 여성의 위상

이슬람에서의 남녀 동등성, 즉 인간적인 기본적 동등성, 남녀 의무사항에서의 동등성,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의 동등성, 재정소유권과 거래의 자유에 있어서의 동등성, 명예 유지의 동등성, 교육의 동등성, 사회개혁을 위한 책임의 동등성

이슬람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상과 권리, 즉 유아 시절의 동등성, 어린이가 되었을 때의 동등성, 소녀가 되었을 때의 동등성, 자매가 되었을 때의 동등성, 아내가 되었을 때의 동등성, 어머니가 되었을 때의 동등성, 친척이 되었을 때의 동등성, 이웃이 되었을 때의 동등성 및 그 밖의 여성의 동등성

이슬람 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즉 일부다처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 지도자의 지휘와 책임, 결혼과 보호를 받을 권리, 아내에 대한 계율, 명예살인, 이혼, 증언, 유산, 피살자의 근친에게 주는 위자료, 고용 및 베일(hijab)

- ◆ 역자 서문 / 11
- ◆ 들어가면서 / 5
- ◆ 서문 / 7
- ◆ 여성의 권리 요구 / 22
- ◆ 시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위상 / 24
 - 1. 이슬람 이전 사회의 여성 / 24
 - 2. 과거 인도 사회의 여성 / 27
 - 3. 과거 중국 사회에의 여성 / 28
 - 4. 과거 그리스 사회의 여성 / 29
 - 5. 과거 로마 사회의 여성 / 30
 - 6. 과거 유대 사회의 여성 / 30
 - 7. 과거 기독교 사회의 여성 / 32
- ◆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권리 / 36
 - 1. 이슬람에서의 남녀평등과 상호보조 / 36

2. 여아, 여자 어린이, 딸로써의 여성 /44
3. 아내로써의 여성 /52
4. 어머니로써의 여성 /67
5. 친척 그리고 이웃으로써의 여성 / 81
6. 이슬람 여성에 대한 오해 /85
7. 이슬람의 일부다처 /86
8. 결혼서약서에서의 보호자의 권위 /98
9. 가족을 위한 남자의 경제적•도덕적 책임 /102
10. 아내에 대한 혼계 /104
11. 명예살인 /109
12. 이혼 /110
13. 유산상속에 대한 여성의 권리 /114
14. 보상금(blood-money) /118
15. 여성의 증언 /118
16. 남성 보호자(mahram) 없는 여성의 여행 /122
17. 여성의 노동권 / 124
18. 히잡(hijab) /128

◆ 나가면서 / 132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¹⁾의 이름으로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가문과 그분의 교우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본서는 이슬람 종교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슬림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자들의 거짓 선전에 대해 이슬람에서 본 여성의 위상과 지위를 다루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인간이란 점에서 동등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이슬람의 기본 개념이다.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이슬람의 메시지가 처음 소개된 당대의 다른 문명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새로운 개념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간에 완전히 독립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는 보완적 존재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보완적 역할과 의무

1) 시작과 끝이 없이 존재하며 우주와 인간을 존재케 한 절대자 창조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가 구세주로 믿었던 성부와 성자를 두지 않은 일위 일체의 유일신을 가리킨다(역자 주)

가 있다. 남성의 보완적 역할 없이 여자의 본능적인 일생과 사회생활이 온전할 수 없고 여자의 보완적 역할 없이 남자의 본능적인 일생과 사회생활이 온전할 수 없다. 본능적으로 서로 다르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서로 다르고, 이성적·감성적으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강제적으로 동등한 평등권을 논한다는 것은 남자의 본능과 특성을 무시하고 여자의 본능과 특성을 도외시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완벽한 분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인간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다. 권리는 항상 능력과 의무에 비례한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슬람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슬람의 완벽한 도덕과 법전에 근거한다. 인류의 생존은 가족의 생존과 번성에 달려 있다.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 각자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각자의 역할과 의무는 반드시 믿음을 포함한 덕과 순결, 존중과 예절, 윤리와 도덕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문명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 이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꾸란에는 남자와 동등한 여성의 권리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슬림 남녀와 믿음이 있는 남녀와 순종하는 남녀와 진실한 남녀와 인내하는 남녀와 두려워하는 남녀와 자선을 베푸는 남녀와 단식을 행하는 남녀와 정조를 지키는 남녀와 그리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남녀를 위해 관용과 크나큰 보상을 준비하여 두셨느니라(33:35)

남편은 아내를 위한 의상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한 의상이니라(2:187)

옷은 몸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요 외모를 치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옷을 입을 때 포근함을 느끼고 부끄러운 곳을 가려줘 편안함을 안겨준다. 옷은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남자와 여자는 본능적 신체 조건과 본성에 따라 신체의 일부를 표출시키거나 가리는 옷을 입으려 한다.

이슬람은 이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 피조물이 필요로 한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에 근거한 견해다. 그분께서 압둘라(Abdullah)의 아들 무함마드(Muhammad)를 마지막 예언자(nabi)이자 마지막 사도(rasul)로 택하여 시공을 초월한 인생의 완벽한 길잡이가 되고 진실한 신앙인의 좌표가 되는 계시를 내리셨다. 사도 무함마드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분의 평화와 자비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예언자의 가족들과 추종자들은 예언자의 모범을 뒤따르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정신으로 선행을 실천하였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다음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인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런데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초기 무슬림들과는 달리 이슬람을 이탈하는 일부 무슬림들이 생겨나고 범죄에 가담하는 일부 무슬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슬람의 메시지를 일상생활에 충실히 적용하고 실천하는 남녀 무슬림들이 있

고 이슬람 지식에 박식한 남녀 무슬림들이 있기에 이슬람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본서는 이미 이슬람 그늘에 있는 여인(woman in the shade of Islam)이란 명칭으로 발간되었으나 이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이슬람 여인의 위상(makanat al-mara fi al-Islam)이란 제목으로 재출간을 하게 되었다. 본서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자의 헌신적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Abu Salman Deya-ud-Deen Eberle

abusalman102@yahoo.com

abusalman102@gmail.com

가

만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며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가문과 그분의 교우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필자는 본서를 통해 이슬람에 있어 여성의 권리와 위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와 관련한 타당성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슬람이 여성을 부정하게 대하고 억압한다는 험담과 폄하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꾸란과 예언자께서 여성에 대한 험담과 폄하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이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니라(49:13)

하나님의 또 다른 증표 중에 하나는 너희 자신에게서 배필을 지으신 후 그 배필과 함께 평안하게 살게 하고 서로 간에 사랑과 자비를 두셨느니라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느니라(30:21)

다음은 여성과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성은 남자의 절반이지요.”(아부 다우드 #234, 티르미지 #113)

여성의 해방과 자유, 동등한 권리, 그리고 남녀평등권 주장이 전 세계에서 줄곧 있어왔다. 이와 관련한 슬로건들이 거리 벽보마다 붙었고 이를 주장하는 자들에 의한 거리행진이 이어져 왔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부정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가 하면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되는 그런 사회도 있었다. 이슬람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일부 무슬림도 있다. 어느 무슬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이슬람은 여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국제여성해방운동을 펼치고 있는 자들이 선전하고 있는 슬로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여성해방,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 여성의 권리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다. 필자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이슬람법과 이슬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슬람의 본질을 잘 못 알고 있는 일부 무슬림들의 관행과 이슬람을 이탈한 무슬림들의 관습은 무시할 것이다.

첫째, 해방이란 족쇄, 속박,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다. 둘째, 여성해방이란 여성이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애매모호하고 오해를 유발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절대적 자유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

간은 선천적으로 제한된 능력과 사회 체제나 기구의 필요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법과 제도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듯 법과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타고난 선천적 제한과 법적 제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노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누구에게 속한 노예인가? 자유와 해방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제도에 의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부당한 행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로 이어지는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슬람법은 이상숭배와 폭정과 착취와 부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고 있다. 꾸란과 이슬람법은 일위일체(tawhid)의 유일신 사상과 정의와 도덕을 주장하며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독립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슬람법 제도권 내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를 만끽할 수 있다.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슬림 여성 역시 제도권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여성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남성은 여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무슬림 여성을 보호하는 남성은 아버지, 남자 형제, 삼촌이 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있다. 남자는 여성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자신의 모든 역량으로 여성을 부양해야

하느니라(4:34)

이슬람은 무슬림 남녀 모두에게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한다. 남녀 모두가 자신의 성을 보호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무슬림 남녀 모두에게는 성적 괴롭힘이나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법은 무슬림 여성이 성적 조롱이나 성적 괴롭힘 그리고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외출할 때 적절한 옷차림을 요구하고 남녀 간의 자유로운 스킨십이나 혼숙을 금지한다.

이슬람에서 본 자유의 개념은 개인의 행위가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한 선박에 오른 사람들이 두 단체로 나누어 한 단체는 선박 위층에 타고 다른 한 단체는 아래층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탄 단체가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으려면 위층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이 위층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층 선박 한 곳에 구멍을 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면 모두가 의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모두가 안전할 것입니다.”(부카리 #2361)

저명한 독일 출신의 사상가이자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1년 동안 여성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준 다음 나와 함께 그 자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는 조사해 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여러분은 미덕과 정조와 훌륭한 도덕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내가 만일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틀렸어 아니면’ 그가 진리의 핵심을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250종의 신문과 연합을 하고 있는 미국의 헬레시안 스탠베리(Helesian Stansbery) 여성 리포터는 20년 이상을 신문 및 방송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이슬람 국가들을 방문하였다. 그녀의 이슬람 국가 마지막 방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랍의 이슬람 사회는 건전한 사회다. 무슬림 남성들과 무슬림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 그곳의 전통은 계속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회는 유럽 및 미국사회와 뚜렷하게 다르다. 아랍 이슬람 사회는 여성들에게 어떤 약간의 제한을 두면서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존경과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제약은 유럽과 미국 사회와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절대적인 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랍 이슬람 사회가 제한하고 있는 그 제한은 효과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전통과 도덕이 줄곧 유지되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남녀공학을 찬성하지 않는다.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성의 개방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의 개방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자제는 필요하다. 따라서 얼굴과 손목을 제외한 나머지 살결을 가리는 푸르다(purdah)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이 자유화되고 개방된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낫다. 내가 남녀 공학을 반대하는 이유도 성의 개방과 남녀공학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피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는 복잡 미묘하다. 성의 자유에 관한 다양한 용어와 온갖 형태의 성 문화가 있다. 성의 자유와 남녀공학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구치소와 거리와 선술집과 여관과 창녀촌을 가득 메우고 있다. 현재 젊은 여성들과 딸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그릇된 자유가 그들을 약물중독과 범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남녀공학과 성의 자유가 가족을 위협해오고 있으며 도덕과 윤리를 흔들고 있다.

진정으로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여성 해방운동 주장자들에게 묻고 싶다.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이슬람법처럼 진정으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 서구의 저명한 여러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인 해밀턴(Sir Hamilton)은 ‘이슬람과 아랍문명’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성에 관한 이슬람 법규와 규정은 분명하고 명백하다. 이슬람은 여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명예와 인격에 피해가 되고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규범이다.”

저명한 프랑스 사상가 구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은 ‘아랍문명’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슬람은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미덕이자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최초의 종교이다. 이 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이슬람이 태동하기 이전 모든 종교와 국가들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모욕을 하였기 때문이다.”(488쪽)

그는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꾸란에 언급된 결혼과 부부관계 권리는 유럽에서의 결혼과 부부관계 권리보다 훨씬 훌륭하다.”(497쪽)

1천 4백 년 전 메카와 메디나로부터 이슬람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메시지를 가르쳤다. 꾸란이라고 하는 계시서의 말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통이라 일컫는 순나(sunnah)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가르침이 추종자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무슬림들의 사회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슬람이 놀라우리만큼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인간의 전반적 생활방식에도 역시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슬람이 인간의 본능이 추구하는 것에 부합되는 종교였기 때문이다.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이전 아랍사회와 그 당시 다른 문명사회에 여성들의 위상은 어떠한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이슬람 이전 사회의 여성

이슬람 이전 우상숭배 시절 아랍사회의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수치와 모욕에 노출되어 있었다.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처럼 간주되었다. 부모의 재산은 물론이고 남편의 재산도 상속 받을 권리가 없었다. 당시 아랍인들은 전투를 치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성들에게만 유산상속이 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말을 탈 수 있는 자나, 싸움을 할 수 있는 자, 전투에 참여하여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는 자, 가족이나 부족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자들만이 유산 상속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아랍 여성들은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나 남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커녕 동산(動産)처럼 상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하물며 죽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서 낳은 자식이 장남일 경우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동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이복 자식이 배다른 어머니를 상속받은 것이다. 이 경우 이 어머니는 이복 아들에게 몸값을 치루지 않으면 집을 떠날 수도 없었다.

이 시대의 남성들은 제한 없이 아내를 둘 수 있었다. 아내들에 대한 남편의 불합리한 대우를 막을 법이나 제도도 없었다. 남편을 선택할 자유는 물론이고 남편 선택에 대한 동의권마저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혼한 여성은 재혼할 권리도 없었다.

이슬람 이전 아랍 사회에서의 아버지는 여성의 출생을 무척 싫어하였고 하물며 여아가 태어나면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하물며 일부 아랍인들은 여아의 탄생을 가문의 수치나 불길한 나쁜 징조로까지 생각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나쁜 소식을 전해들은 자는 수치스러워 사람들로 부터 자신을 숨기노라 그는 수치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흙 속에 묻어 버릴 것인가를 생각하나니 실로 저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니라(16:59)

여성들은 일부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제한을 받았다. 어떤 일부 음식은 남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또 그들이 말하길 이 가축의 자궁 속에 있는 것은 남자들을 위한 것으로 여성에게는 금지된 것이나 만일 죽어서 태어난다면 거기에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더라(6:139)

여아에 대한 증오는 도를 넘을 정도였다. 여아가 태어나면 생매장까

지 하였기 때문이다. 심판의 날 어떤 이유로 생매장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꾸란은 언급하고 있다.

산채로 매장된 여아가 질문을 받노라. 어떤 잘못으로 살해되었느냐
(81:8-9)

일부 아버지들은 여아가 나병에 걸려 태어나거나 불구나 신체적 결함을 갖고 태어날 경우 생매장을 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가난이 두려워 너희의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들과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것은 나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니라(17:31)

이슬람 이전 시대의 여성들에게 주어진 명예는 그녀의 가족이나 가문을 보호하고 여성을 욕보이거나 모욕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그 여자의 주인인 남자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였지 여성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제2대 칼리프였던 우마르 이븐 알-카탐(Umar bin al-Khattab)이 당시 아랍사회 여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를 내릴 때까지 여성들은 아무 것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부카리 #4629, 무슬림 #31)

2. 과거 인도 사회의 여성

인도 사회에서의 여성은 일반적으로 하녀나 노예 취급을 받았다. 매사에 남편을 따라야만 했다. 남편의 도박자금으로 제공되기도 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남편이 죽어 화장할 때 화장용 장작더미에 스스로 몸을 던지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이러한 전통을 수티(sutti)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행위는 힌두교 지도자들 때문에 법을 초월하여 17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수티 행위는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인도 변두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악습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인도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승려들의 내연의 처나 매춘부로 바쳐졌다. 다시 말해 인도 여성들은 힌두교의 신들을 기쁘게 하거나 신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여달라고 바쳐진 제물이었다. 일부 힌두교 법은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세찬 바람, 폭풍, 죽음, 불지옥, 독약, 뱀, 불보다 더 악하다.”

또 다른 힌두교 책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창조의 신 힌두교 마나(Mana)가 여성을 창조하면서 침대의 여자, 앉아 있을 때의 여자, 치장의 여자, 온갖 형태의 관능적인 여자, 분노하는 여자, 배반하는 여자로 만들었다.”

여성에 관한 마나 헤르마 시스트라(Manna Herma Sistra)의 가르침에서 다음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여자는 어린 소녀이건 젊은 숙녀이건 또는 성숙한 여인일지라도 선택권 없이 살아야 한다. 어린 소녀는 아버지의 명령과 선택권 하에 있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명령과 선택권 하에 있으며, 과부가 된 여성은 자식의 명령과 선택권 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결코 독립되지 않는다.

과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재혼하지 아니하며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음식이나 옷이나 치장도 멀리해야 한다.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한 여성이 동시에 여러 남편을 두었다.²⁾ 이것은 의심할여지 없이 여성을 창녀로 만든 것이다.

3. 과거 중국 사회에의 여성

중국 사회의 여성들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관습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할당되었다. 남자 아이는 신이 내린 선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여자 아이는 여러 고난을 이겨내야 했다. 하물며 도주하지 못하도록 다리병신을 만들어 놓은 관습도 있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아내가 한 말은 듣되 절대 믿지 마시오.”

2) Hindu Inter-caste Marriage in India, Chapter 3 (Forms of Marriage) part 2 (Polyandry), by Haripada Chakraborti.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도 이슬람 이전 아랍 사회나 인도 사회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

4. 과거 그리스 사회의 여성

그리스 사회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악의 축소판으로 간주될 정도로 격하되었다. 여성은 사탄이 만든 더러운 것이라고까지 여겨졌다. 그 사회에는 여성들을 보호할 제도도 없었다.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상품처럼 거래가 되기도 했다. 유산 상속에 대한 권리도 없었고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을 거래하거나 처분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평생 동안 남성들의 속물이었고 이혼은 남자들의 절대적 권리였다. 그리스 일부 사상가들은 그리스 여성의 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성들이 집안에 감금되는 것처럼 그녀들의 이름도 반드시 집안에 감금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상가 구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은 ‘아랍문명’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여성을 최하급의 피조물로 간주하였다. 출산과 가정사를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여자가 신체적 결합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는 멋대로 그 아이를 살해할 수 있었다.”

그리스의 저명한 웅변가이자 사상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 남성들은 창녀들과 동반하면서 성적 쾌락을 즐기고, 여자 친구들과 성을 즐기고, 애인들과 성을 즐긴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돌보고 합법적인 자식을 갖기 위해 아내들을 둔다.”

5. 과거 로마 사회의 여성

로마 사회의 여성 역시 자신에 관한 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열등한 피조물로 간주되고 있었다. 공적인 업무는 물론 사적인 업무까지도 모두 남성의 손안에 있었다. 아내가 특정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그녀에 대한 사형선고의 권한도 남자에게 있었다.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한은 상상을 초월했다. 상품처럼 아내를 거래하는 것에서부터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 투옥시키거나 사형선고를 내리는 권리까지 갖고 있었다. 로마 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자가 하는 말에 복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여성에게는 유산상속에 대한 권한도 없었다.

6. 과거 유대 사회의 여성

유대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은 앞서 언급한 것보다 못했다. 다음은 구약성경에서 묘사된 유대 사회의 여성이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

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구약성경, 전도서 7:25-26)

구약 70인역(譯)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구약성경, 출애굽기 21:7-11)

유대 여성이 결혼하면 그 여성에 대한 후견인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그녀의 남편에게로 넘어가 일반 재물이나 노예, 하인처럼 아내에 대한 소유권도 남편에게 넘어간다.

유대교의 가르침과 법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을 경우 딸에게는 부친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구약 70인역(譯)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구약성경, 민수기 27:8)

더 나아가 유대교 신자들은 아내가 생리 중에 있을 때는 잠자리도 함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그리고 마시는 것도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 아내의 생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내와 떨어져 홀로 있곤 한다.

7. 과거 기독교 사회의 여성

기독교 성직자들은 여성을 원죄의 원인자로 간주하고 온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는 극단주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는, 결혼이 비록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전통적으로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성트로톨리안(Saint Trotolian) 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의 마음으로 가는 사탄의 길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저주받은 나무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는 신법을 위반하고 남자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다.”

덴마크 작가 위스 쿠느데센(Wieth Knudesen)은 중세 시대 여성의 위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여자는 두 번째 등급의 시민으로 창조되었으

므로 약간의 보살핌과 관심만 주어진다면 된다.”

1586년 프랑스에서 여자를 인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여자는 인간이다. 그러나 남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다.”

이 회의는 여자에게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여성을 위한 완전한 권리는 결정하지 않고 남자의 줄개 내지는 남자에게 봉사하는 하녀로 남겨놓았다. 이 결정은 약 352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1938년에 와서야 여성들이 직접 금전거래를 하고 여성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유럽인들은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고 중세기 동안 내내 여성의 권리를 박탈했다. 영국 법은 자신의 아내를 파는 것까지 간과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성과 여성 간의 간격이 더욱 멀어지면서 여성은 남성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까지 모두 빼앗겼다.

여성이 가지고 있던 것은 모두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에 따르면 최근까지 여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프랑스 법 217조항을 보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한 여성에게는 비록 결혼 서약서에 남편과 아내의 재산권과 소유권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권리, 명의 변경의 권리, 남편의 참여 혹은 서명 동의가 없는 경우의 계약은 효력을 잃었다.”

프랑스 법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지만 혼인법은 결혼하는 프랑스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문명화 된 일종의 노예 형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은 결혼과 더불어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 가문의 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추종자가 되고 자신의 주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 버나드 쇼(Bernard Shaw)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국 법에 따르면 결혼한 순간부터 여성이 소유한 모든 것은 남편의 소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서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져 온 권리침해 중에 하나는 법과 종교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결혼 계약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여성은 이혼의 권리도 없다. 남편과 아내는 단지 육체적으로만 분리될 뿐이다. 이것은 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성적 추문을 유발시킬 수 있다. 미혼 여성의 증가,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와의 비윤리적 성관계, 동성애와 매춘업의 성행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한 후 홀로 생존해 있는 미망인에게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재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모순 가운데 하나다.

현대 서구 문명이 유대이즘과 기독교의 종교적 전통에 바탕에 근거를 둔 그리스와 로마 전통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이다. 위에 언급한 남성위주의 폐습과 악습이 자연스럽게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상가나 교육자,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론의 격변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남녀동등권 요구가 나오고 남성위주의 소비니즘과 악습으로부터의 여성해방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현대 세속 사회에서의 여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 동등권과 여성해방이 여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시장터로 내몰고 있다. 더 많은 노동이 요구되면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광고모델이란 이름으로 광고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이로 인한 가정의 붕괴와 성문란이 확산되어가면서 낙태, 유산, 미혼모, 버려지는 아이,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역사가 남긴 유산에 근거하여 이슬람에서 여성이 갖는 권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슬람이 배려하는 여성의 권리가 오히려 남성이 갖는 권리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권리는 여아의 권리에서부터 딸의 권리, 자매의 권리, 아내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 그리고 친척과 이웃의 권리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슬람은 여성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한 인간으로서 자신과의 관계, 남자와의 관계, 남편과 가족과의 관계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조명한다. 다른 사회에서의 여성들이 갖는 권리와 이슬람에서의 여성들이 갖는 권리가 비교될 것이다.

1. 이슬람에서의 남녀평등과 상호보조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며 영혼과 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다. 두뇌와 마음을 갖고 있고 사지와 오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녀평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육체적·정신적·감성적 특징과 심리학적 특성과 성향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평등과 상호보완적 존재라는 것을 조명하고자 한다.

남성이던 여성이던 동성 간의 절대적 평등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타고난 신체적 힘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성 간의 평등도 불가능 한데 성이 다른 남녀 간의 평등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자웅과 쌍으로 창조하니라 너희는 나의 은총을 기억
해야 할 것이니라(51:49)

하물며 핵도 이원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양성분자와 음성분자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각자는 모든 생명체의 이원원리라는 전체적 체계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모든 생명체는 생산을 위한 수컷과 암컷을 갖고 있다. 생물학에 따르면 모든 포유동물은 성의 차이를 결정하는 인자에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기본적인 육체적·정신적·성적 특징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함께 하면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간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자를 필요로 하며 남자와 함께 하면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간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 없이 온전할 수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인간들이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는 분이시니라(49:13)

이슬람은 여러 많은 부분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한다. 그 중에 지면상 몇 가지만 언급할 것이다.

1) 인간이라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태초의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지 않는 양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여성을 악의 근원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담이 천국에서 추방된 원인을 여성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슬람은 일부 다른 종교의 교리들처럼 여성을 악의 판도라 상자에 넣지 않고 오히려 석방시키고 있다. 즉 여성을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있다. 창조주께서 금기한 나무의 열매를 먼저 맛본 것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서 분리되었다는 꾸란의 내용이다.

인간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고 그 둘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많이 두도록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라(4:1)

인간은 자신이 제멋대로 방치될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는 단지 흘러나온 정액의 한 방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것이 응혈되고 하나님께서 모양을 갖추어 완전한 형상을 지으시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자웅을 두시니라. 그런 분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실 권능이 없으시겠느냐(75:36-40)

위에 언급된 꾸란의 내용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동일한 실

체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존재다. 이에 근거하여 이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낮고 미개하다는 이슬람 이전의 불공평한 법들을 모두 폐기시켰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실로 여자는 남자와 하나를 이루고 있는 절반입니다.”(아부 다우드 #234, 티르미지 #113)

2) 남녀 간의 종교적 의무와 의식도 평등하다. 일위일체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선서(shahadah)를 비롯하여 예배(salah), 이슬람세(zakah), 단식(saum), 성지순례(hajj)에 관한 이슬람 오행에 대한 의무는 남녀 간의 차별이 없다. 오히려 여성에게 힘든 것은 의무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슬람은 여성의 건강상태를 먼저 고려한다. 예를 들어 생리 중에 있거나 출산 후 출혈이 있거나 건강회복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는 예배와 단식이 면죄된다. 단식의 경우 생리나 산후 출혈로 예배를 근행하지 못했을 경우 건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단식을 근행하지 못했던 날자만큼 보충하면 되나 예배는 보충할 필요가 없다.

3)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과 대가도 남녀 평등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남녀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부여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실천한 선행에 대하여 최상의 것으로 보상할 것

이나라(16:97)

하나님께서서는 무슬림 남녀와 믿음이 있는 남녀와 순종하는 남녀와 진실한 남녀와 인내하는 남녀와 두려워하는 남녀와 자선을 베푸는 남녀와 단식을 행하는 남녀와 정조를 지키는 남녀와 그리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남녀를 위해 관용과 크나큰 보상을 준비하여 두셨느니라(33:35)

4)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동일한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남성이 순결과 인격과 명예를 지켜야하는 것처럼 여성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어 순결한 여성을 간음한 자나 간통한 자로 거짓 또는 허위로 말한 자는 공개로 형을 받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순결한 여성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네 명의 증인을 내세우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여든대의 가죽 채찍을 가하되 그들의 증언도 수락해서는 아니 되나니 이들은 사악한 죄인들이라(24:4)

5) 금융거래나 재산소유권에서도 남녀 평등하다. 이슬람법은 여성들에게 현대사회처럼 재산소유, 금융거래, 구매와 거래를 보호자의 승인이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다른 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남녀평등권을 보호하고 있다.

6) 이슬람은 남녀 각자에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행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을 확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는 남자는 바르지 못하고 불공평한 남자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한 신앙인은 인격이 가장 훌륭한 남자이지요. 여러분 중에 가장 훌륭한 자는 여성들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는 남자입니다.”(티르미지 #1162)

7) 이슬람은 교육에 있어서도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의무입니다.”(이븐 마자 #224)

꾸란에 언급된 무슬림(muslim)이란 단어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무슬림 남녀 모두는 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동등한 의무를 갖는다. 이슬람은 여성들에게 능력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무를 요구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결혼 적령기가 될 때까지 두 명의 여아를 돌보는 자가 있다면 부활의 날 그는 나와 함께 나란히 함께 갈 것입니다.”(무슬림 #2631)

다음은 노예 여아에 대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노예상태에 있는 한 명의 여아를 최선의 매너로 지도하고 가르친 후 해방시켜 결혼시킨 자가 있다면 그는 두 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부카리 #97, 무슬림 #154)

8)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를 더 좋은 공동사회로 개혁하고 개선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가 하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퇴치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남녀의 의무와 책임도 같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들은 서로 선을 권유하고 악을 금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사도에게 복종하노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니라(9:71)

9) 남자와 여자에게 이슬람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정해진 무슬림은 계산법에 따라 재산에 대한 공정한 몫을 가질 권리도 있다. 이슬람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다. 남녀는 유산에 대한 정해진 몫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본서 뒷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과거의 다른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무슬림 여성의 권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남자에게도 귀속되고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여자에게도 귀속되나니 남긴 것이 적던 많던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 있느니라(4:7)

10) 여성도 남성처럼 비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은신처나 피난처를 간구할 때 그를 보호하여 줄 권리를 갖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만약 우상숭배자들 중에서 누구라도 그대에게 보호를 구한다면 그를 보호할 것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것이며 그런 후 그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니라(9:6)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남녀 무슬림은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무슬림의 권리를 빼앗거나 침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의 저주가 그에게 있을 것이며 그의 회개나 몸값도 수락되지 않습니다.”(부카리 #3008)

메카가 정복되던 날 과거에 어떤 원한 관계로 친인척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한 이교도가 움무 하니(Um Hani: 하니의 어머니)에게 은신처를 요구해 왔을 때 그녀는 그 이교도를 보호하여 주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니 어머니, 당신이 은신처를 제공하고 보호한 자라면 우리도 그

를 보호하고 은신처를 제공할 것입니다.”(부카리 #350)

지면상 여성 무슬림의 권리를 몇 가지만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2. 여아, 여자 어린이, 딸로써의 여성

꾸란은 여아와, 여자 어린이 및 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가난이 두려워 너희의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들과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것은 나 하나님이니라 그럼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악이니라(17:31)

부모는 어린이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적절하게 보살 피고, 부모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고, 존경 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머니에게의 불효를 금지하고 여아를 생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부카리 #1407, 무슬림 #593)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살해될 경우 배상금이나 몸값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의 부인 아이샤(Aisha)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후싸일(Huthail) 부족 출신의 두 여성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한쪽 여성이 던진 돌에 다른 쪽 여성이 죽었다. 그런데 피살자의 자궁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예언자께서는 자궁에 있는 아이가 남성이던 여성이던 그 아이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가해자가 속한 부족은 100마리의 암컷 낙타를 보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부카리 #3512, 무슬림 #1681)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이 년 동안 젖을 먹어야 되나니 이것은 수유를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위함이니라 이때 아버지는 아이와 아내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니라(2:233)

남녀 어린이에게는 수유 다음으로 보호받아야 가장 중요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13세살 정도 될 때까지 남녀 어린이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어머니에게 양육권과 보호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린이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은 남자 보자 여성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압둘라 빈 아므르(Abdullah bin Amr)가 예언자를 찾아와 남편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저의 자궁에 있는 태아에게 저의 가슴으로 그 태아에게 양분을 제공

하였고 그 태아가 출생해서부터는 저의 무릎 위에서 오랫동안 길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아이를 빼앗아가려 합니다.”(아부 다우드 #2276)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당신이 재혼할 때까지 당신에게는 그 아이를 보살필 권리가 있습니다.”(아부 다우드 #2276)

남녀 아이들에게는 부모로부터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음은 예언자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는 외손자 하산 빈 알리(Hasan bin Ali)에게 아끄라 빈 하비스 타미미(Aqra bin Habis al-Tameemi)가 보는 앞에서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끄라는 10명의 자녀 누구에게도 키스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사랑과 애정이 없는 자는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하지요.’”(부카리 #5651)

이슬람은 어린이, 특히 여성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어린 두 명의 여자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한 자가 있다면 부활의 날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무슬림 #2631)

이슬람은 최선의 매너로 남녀 아이들을 양육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책임 있는 자가 남녀 어린이 교육에 무관심하고 소홀이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죄가 성립됩니다.”(무슬림 #996)

다음은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이븐 우마르(Ibn Umar)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각자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보호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시민의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책임이 있고 남자는 가족의 목동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는 가정의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의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목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보호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부카리 #853, 무슬림 #1829)

이슬람은 모든 일에 있어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녀 성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정의와 선을 실천하라 하였고 친척에게 자선을 베풀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추한 언행과 사악함과 배반함을 금지하여 너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셨느니라(16:90)

예언자의 아내이자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아이샤(Aisha)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난한 여성이 어린 두 딸을 안고 나의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원하기에 당시 내가 가진 것은 종려나무 열매밖에 없어 3개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두 딸에게 각각 한 개씩의 열매를 주고 한 개는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배고픈 두 딸이 더 달라고 보챘다. 그래서 입에 넣은 열매를 이빨로 두 조각내어 반개씩 두 딸에게 더 먹였습니다. 나는 그 여성이 보여준 두 딸에 대한 사랑을 보고 예언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니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무슬림 #2630)

“하나님께서서는 두 딸에게 보여준 그녀의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에게 천국을 보장시거나 아니면 그녀를 지옥불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무슬림 #2630)

“딸들을 보살피기 위해 고생을 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지옥불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부카리 #1352, 무슬림 #2629)

어린이는 성에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물질적•정신적으로 공정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아보다 남아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서도 안 되고 그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들에게만 선물을 했다는 어떤 교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당신 자녀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습니까?”

이에 그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리고 성에 관계없이 당신의 자녀 모두에
게 공평하게 하시오.”(무슬림 #1623)

이슬람은 성에 관계없이 고아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
다. 고아가 되면 그 아이의 성격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 못하거나 친절한 배려나 보살핌이 없을 경우에는 탈선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슬람은 남녀 구별을 두지 않고 고아들에 대하여 특별한 배
려를 한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친인척들로 하여금 보살피도록 요구하고
있다. 친인척이 없는 고아들은 이슬람 국가가 그들을 보살필 의무를 갖
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고아들을 거칠게 대하지 말 것이니라(95:9)

고아들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그들의 복부가 불길을 삼키는 것과 같
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타오르는 화염의 밥이 될 것이니라(4:10)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두 약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선포하나니 그 두 약자는

고아와 여성이니라.”(하킴 #211, 타바라니)

이 두 약자를 부정하게 대우하거나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거나 권리를 부정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파괴를 유발하는 일곱 가지 죄를 피하십시오. 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것을 비유하여 섬기는 것이요, 요술이나 마술을 행하거나 믿는 것이요, 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요,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이요, 고아의 재산을 탐내거나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요, 전투에서 도주하는 것이요, 순결한 여성 신자를 간음이나 간통으로 죄를 씌우는 것입니다.”(부카리 #2615, 무슬림 #89)

이슬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고아들에 대한 후원자들이 되어 줄 것과 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사랑과 애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와 고아의 후원자는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부카리 #4998)

이슬람은 사회에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는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고아들처럼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

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살아 있는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부카리 #2334)

이슬람법은 결혼할 대상자 선택에 있어 딸의 의견과 동의를 필수적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딸은 아버지의 강요로부터 자유롭다. 청혼을 수락하고 거부할 권리는 딸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이혼녀나 과부는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으며 미혼녀는 자신이 동의한 후에 결혼생활에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였다.

“어떻게 동의를 표시합니까?”

이 질문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수줍어 대답을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것도 동意的 표현이지요.”(부카리 #4843)

이맘 아흐마드(Imam Ahmad)와 그 밖의 학자들은 예언자의 부인 아이샤(Aisha)가 한 말을 전하고 있다. 한 여성이 예언자를 찾아와 질문한 내용이다.

“예언자님, 저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려고 저에게 아버지의 조카와 결혼하라고 제의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는 결혼 제의를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여성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하셨다.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을 이제 와서야 인정하지만 아버지가 강제로 딸을 결혼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다른 여성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아흐마드 #25027)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딸은 사랑스럽고 귀중한 것이다.

“딸이나 여성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그들은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기쁨을 주는 동반자입니다.”(아흐마드 #17411)

2. 아내로써의 여성

다음은 아내와 관련이 꾸란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증표 중에 하나는 너희 자신에게서 배필을 지으신 후 그 배필과 함께 평안하게 살게 하고 서로 간에 사랑과 자비를 두셨느니라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느니라(30:21)

하나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보완하고 보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필하고 보완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의 가치를 알게 하고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

이슬람 사회의 기본적 토대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가족이다. 가

족의 성공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이슬람은 각 배우자에게 권리를 허용하고 의무를 부여한다. 본서는 이슬람에서의 무슬림 여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아내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혼인금(mahr)

혼인금은 결혼할 때 신부가 갖는 권리다. 혼인금이 명시되지 않는 결혼계약은 합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혼계약이 상실될까지는 혼인금은 무슬림 여성의 고유한 권리다.

혼인금은 결혼이 성사되는 순간부터 여성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여성은 합법적으로 결혼이 성사된 후에는 그 혼인금에 대한 양도나 처분은 여성의 권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결혼할 여자에게 혼인금을 주어야 되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그것의 얼마가 되 돌아온다면 기꺼이 수락해도 되니라(4:4)

이혼할 때 남편은 그 혼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만일 너희가 아내를 다른 아내로 대체하려 하거든 너희가 그녀에게 준 혼인금 가운데서 일전 한 푼도 취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부정

하게 취득하려 하느냐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니라. 어떻게 되돌려 받으려 하느냐 너희는 이미 함께 동거하여 생활하였고 그녀들은 너희로부터 엄숙한 맹세를 받지 않았더뇨(4:20-21)

본 절은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믿는 자들이여 여성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하며 여성들이 재혼하려 할 때 방해하지 말라 너희가 그녀들에게 준 것의 일부를 빼앗기 위해 그녀들을 학대해서도 아니 되니라 그러나 그녀들이 분명한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는 예외라 여성들에게 친절해야 되느니라 만일 너희가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행의 일부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4:19)

본 절은 남편이 어떠한 핑계로 아내를 싫어하거나 이혼하려 할 때 아내의 권리를 확보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신앙인은 신앙인 아내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아내의 어떤 성격이 싫다면 아내의 다른 좋은 성격으로 만족하면 됩니다.”(무슬림 #1469)

2) 충분한 생활비 지급

남편은 자신의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생활비를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능력에 따라 지불하되 능력의 한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는 것 중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것 이상의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하지 아니 하시며 어려움을 쉽게 풀어 주시니라(65:7)

만일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와 수준에 맞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의 재산 중에서 일정량을 취할 수 있다. 그녀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다. 물론 낭비나 과소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트바(Utba)의 딸 힌드(Hind)가 예언자를 찾아와 남편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다.

“저의 남편은 너무나 인색합니다. 저의 생활비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너무가 적게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남편의 재산에서 당신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를 가져가시

오.”(부카리 #5049)

만일 남편이 경제적으로 크게 시달리고 있어 가족이 필요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거나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 생활비를 받기 어려울 때는 아내는 법정에 중재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이슬람법학자들의 판단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성에 관한 일에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여성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자가 여러분의 침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혼계를 하시오. 그러나 자신의 능력 안에서 아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무슬림 #1218)

예언자께서 교우인 싸아드 빈 아비 와까스(Saad bin Abi Waqqas)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족을 위해 지출한 것은 비록 그것이 아내의 입에 넣어준 한 입의 음식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부카리 #2592, 무슬림 #1628)

3) 공정과 평등

일처 이상을 둔 남자는 아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일상적

인 양식을 비롯하여 입을 옷, 주택, 시간배려, 부부관계 등 모든 일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만일 너희가 남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하여 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좋은 여성 중에서 둘 또는 셋 또는 넷과도 결혼해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된다면 한 여성의 부인만 두라 너희 오른 손이 소유한 여인과 결혼해도 되나니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니라(4:3)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두 아내를 둔 남자가 한 아내에게 기울어진다면 그는 부활의 날 그의 한쪽이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아부 다우드 #2133, 티르미지 #1141)

위의 꾸란 내용과 예언자의 말씀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둔 남자는 아내들에게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징벌로 부활의 날 그의 몸이 마비고 되고 보기 흉한 불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이 어떤 형태로든 아내를 학대하거나, 곤경에 빠뜨리거나, 애를 먹이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아내의 재산과 자금을 악용하거나, 여행된 외출이나 여행을 금지하거나, 아내가 이혼하고자 할 경우 아내를 힘들게 하여 아내로 하여금 이혼해 주는 대가로 아내의 소유물을 강제로 취하려는 행위 등은 이슬람법이 허용하지 않

는다. 다만 아내가 비도덕적이고 부끄러운 행위를 하여 남편과 가족과 사회에 불명예가 되는 경우 남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내에게 제약을 할 수 있다. 만일 아내가 무분별하게 배신이나 간음의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남편의 나쁜 행실로 아내가 결혼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4) 보호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최선의 다하여 있어날 수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믿는 자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지옥불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그 위에 천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집행하느니라(66:6)

의심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나친 의심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경계가 있고 싫어하시는 경계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경계는 의심이 가는 행위이고 싫어하시는 경계는 어떠한 의심도 없는 행위 이지요.”(아부 다우드 #2659, 나사이

#2558)

시샘의 어떤 종류는 받아들일 수 있고 권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시샘이나 질투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도 경계를 하시고 믿는 자도 경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실 때는 믿는 자가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할 때이지요.”(부카리 #4925, 무슬림 2761)

5) 배려와 관심으로 정을 나누는 관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다정하게 살아가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아내에게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를 원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내에게 훌륭한 인품을 기대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인품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가장 완벽한 신앙인은 가장 훌륭한 성품을 갖춘 자이며 여러분 중에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이지요.”(티르미지 #1162)

사도께서는 스스로 옷을 수선해 입기도 하고 신발을 고쳐 신기도 하였으며 일상적으로 아내를 도와주기도 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의 아내 아이샤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예언자께서 집에 계실 때 어떤 일을 도와주곤 하였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아이샤가 대답하길,

“그분께서는 집안일을 도와주다가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흘러 나오면 예배드리러 자리를 뜨곤 하셨습니다.”(부카리 #644)

예언자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돌 보시면서 때로는 함께 어울리기도 하셨다. 가족과는 농담도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는 오락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다음 네 가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농담을 하고 장난을 할 때, 승마용 말을 길들일 때, 두 목적지를 오가며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수영을 배울 때입니다.”(나씨이 #8939)

대부분의 오락과 유희는 시간낭비에 불과하여 저 세상에 갔을 때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지만 네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유익한 것이므로 보상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예언자께서는 아내와 농담과 장난을 하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본 하디스의 교훈이다. 예언자께서 아내와 즐거운 장난을 가졌다는 것을 그분의 아내 아이샤가 전하고 있다.

“아직 완전한 여자로 성장하기 전 나는 예언자와의 시합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을 하고 몸무게가 늘어난 후에 있었던 시합에서는 예언자께서 이겼습니다. 시합에서 이긴 예언자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내가 이긴 것은 당신이 승리에 것

에 대한 보상입니다.”(아흐마드 #26320, 아부 다우드 #2578)

예언자께서는 집에 있을 때면 잠깐 동안이라도 아내와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잠자리에 가기 전이나 늦은 밤 예배 후에도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븐 압바스(Ibn Abbas)가 전하고 있는 하디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는 예언자께서 늦은 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언자의 아내인 마이무나(Maymunah)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잠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잠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부카리 #4293, 무슬림 763)

다음은 예언자의 모범에 관한 꾸란의 내용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과 내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따라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 자이니라(33:21)

예언자는 무슬림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장 훌륭한 분이시다.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부터 공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매사에 예언자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와 연관된 모든 사적인 생활과 비밀을 철저히 지켜줘야 하고 아내의 부족한 점을 어느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활의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자 중에 하나는 아내와의

성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남자와 남편과의 성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여자이지요.”(무슬림 #1437)

기혼 여성은 남편과 성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남편에게는 부인의 선천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다. 남편이 부인과 성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부인에게 남편의 선천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슬람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쌍방 간의 기본 권리이자 기본적인 의무다.

이슬람은 남편이 신앙생활에만 헌신하고 몰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육체가 갖는 권리도 그렇지만 아내의 권리까지 침해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다보면 아내의 육체적 욕구와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고 가정과 사회적 요구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만 파리시(Salman al-Farisi)가 전하고 있다.

“어느 날 나는 믿음의 돈독한 나의 동생 아부 다르다(Abu Darda)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내 움무 다르다(Um Darda)가 머리 빗질도 하지 않은 채 털수룩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왜 남편 시중도 들지 않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동생 아부 다르다는 현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밤에는 예배에만 전념하고 낮이 되면 단식에만 열중해요.’

동생 아부 다르다가 살만을 맞이했다. 그리고 살만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자신은 먹지 않았다. 그러자 살만이 그에게 말했다.

‘왜 동생은 먹지 않는가?’

그의 동생 아부 다르다가 대답했다.

‘저는 단식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살만이 동생에게 말하길,

‘단식을 깨뜨리고 나와 함께 식사하세.’

그러자 아부 다르다는 단식을 깨뜨리고 함께 식사를 하였다. 살만은 그날 밤을 아부 다르다와 함께 보냈다. 아부 다르다는 늦은 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늦은 밤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였다. 그러자 살만이 이렇게 말했다.

‘너의 몸은 너에 대한 권리가 있고, 주님도 너에 대한 권리가 있고, 너의 아내도 너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몇 일간 단식하면 몇 일간은 식사를 하고 아내의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해요. 각자는 각자의 권리가 있어요.’

새벽이 되기 전 살만은 아부 다르다에게 새벽예배를 허용하고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깨끗이 한 후 순나 예배를 하고 새벽 파즈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스크로 나갔다. 예언자의 집전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부 다르다는 예언자에게로 가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러자 예

언자께서 대답하시길,

‘살만이 진리를 말했어요.’”(부카리 #1867)

아내를 위해 남편은 일정 기간 이상은 집을 비워서 안 된다. 제2대 칼리프 우마르 빈 카탐(Umar bin al-Khattab)이 그의 딸 하프사(Hafsa)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남편이 집을 비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며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최대한의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우마르는 6개월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두 라자크(Abd ar-Razaq)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다.

“우마르 빈 카탐이 야간 순찰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슬퍼서 한탄하며 시를 읊는 소리를 들었다:

밤이 너무 길어요. 밤이 끝나는 시간인데도 아직도 어둡고 캄캄해요.

나는 함께 장난하고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일 천국에 주님의 권자가 없다면

이 침대는 흔들리고 굴러 떨어질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마르가 그녀를 찾아가 어제 밤 그녀가 읊은 시의 사연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남편이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어 자신을 너무 외롭게 만들고 있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우마르는 딸 하프사에게 여자가 남편 없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딸은 수줍어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그 질문이 모든 여성들을 위한 좋은 질문이라

는 것을 알고 6개월이라고 대답했다.

이 일이 있는 후 우마르는 전선에 나가는 모든 군인들에게 6개월마다 휴가를 주어 아내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였다. 이 기간은 가정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적절한 기간이 될 수 있다. 물론 6개월 이상 가정을 비운 남편에게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6개월 전에 돌아와 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 남편은 합당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6개월 이상 가족을 떠나있는 남편은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재정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동의 없이는 아내의 자산에 전혀 관여할 수도 없다.

남편은 주요 가정사나 자녀와 관련된 업무 또는 그 밖의 공동업무에 관하여 아내와 협의를 해야 한다. 가족, 특히 아내의 의견을 무시한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은 현명하지 않다. 아내의 견해가 현명하고 옳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서 예언자께서 보여주신 선례가 있다.

꾸라이쉬 부족과 조약을 체결하던 날 예언자께서는 교우들에게 삭발을 하고 이흐람(ihram) 상태를 벗어나라고 지시했을 때 그들은 게으름을 피우며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예언자의 아내 움무 쉐마가 제의하였다.

“먼저 당신께서 그렇게 한 다음 교우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언자가 아내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렇게 하자 교우들도 서둘러 그렇게 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헤아리며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남편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 예고 없이 늦은 밤에 귀가해서는 안 됩니다.”(부카리 #4948, 무슬림 #715)

사전 예고 없이 밤늦게 귀가하지 말라는 것은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부인이 남편을 맞이할 시간을 주라는 의미다. 준비되지 않는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흠을 잡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대사회에서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귀가 시간을 아내에게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아내에 대한 친절, 세심한 배려, 보살핌, 함께 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아내에게 정직하고, 진실하며, 예절을 갖추는 것도 역시 남편의 의무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애정표시를 해야 한다.

이슬람에서의 이혼제도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화해의 기간과 재결합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다. 이혼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 동등한 권리다. 다음은 이혼과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은 허락되나 그 후에는 두 당사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며 너희가 그녀들에게 주었던 혼인금을 되돌려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니라(2:229)

4. 어머니로써의 여성

꾸란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 특히 어머니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주님 외에는 아무 것도 경배하지 말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을 멸시하거나 대꾸하거나 불평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고운 말을 해야 하느니라(17:23)

본 절은 하나님에 대한 숭배 다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숭배가 하나님의 권리라고 한다면 자식으로부터의 효도는 부모의 권리다. 모든 이슬람 학자들의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복종이 최우선이라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은 그 다음으로 최우선이다.

부모가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식으로 인하여 불쾌해 할 때 하나님께서도 불쾌해 하신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가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가 불쾌해 하면 하나님께서도 불쾌해하시지요.”(이븐 히반 #429)

꾸란에 언급된 비르를 와알리다이니(birrul waalidaini) 문구는 부모에게의 순종과 선행과 친절,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여 주고, 특히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면서 돌보는 것을 뜻한다.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jihad)이다. 꾸란에 언급된 지하드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효도는 성전과 다를 바 없다.

어떤 한 젊은이가 예언자를 찾아와 전선에 나가 성전을 하게 하여달라고 요청하자 예언자께서 그에게 부모가 생존해 있는 지를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를 위해 성전하고 당신을 위해 성전하시오.”(부카리 #2842, 무슬림 #2549)

다음은 이븐 마스우드(Ibn Masud)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예언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언자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사랑받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이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부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친절하고,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보살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는 것입니다.’”(부카리 #5625, 무슬림 #139)

다음은 압둘라 빈 아므르 빈 알-아스(Abdullah bin Amr bin al-As)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님, 충성의 맹세를 하고 이주한 후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여 그분의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질문하시길,

‘부모가 생존하여 계신가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어서인가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시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보살피고 두 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요.’”(무슬림 #2549)

다음은 무아위야 술라미(Muawiyah al-Sulamim)의 질문에 대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도님,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에 예언자께서 그에게 물으시길,

‘당신의 모친이 생존해 계신가요?’

그렇다고 그가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집으로 돌아가 모친과 함께 있어요. 천국은 바로 당신의 어머니 발밑에 있습니다.’”(아흐마드 #1557, 나싸이 #3104)

위에 언급된 예언자의 말씀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 역시 성전이므로 하나님을 위해 전선에 나가 성전함으로서 받은 보상에 버금가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다.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임신에서부터 출산, 수유, 육아, 보육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도님, 가장 많은 배려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누구냐고 묻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고 묻자 예언자께서는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고 묻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아버지입니다.'”(부카리 #5625, 부카리 #2548)

본 하디스는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보살핌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꾸란의 내용이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어머니는 잉태하고 2년간 젖을 먹이므로 말미암아 허약하여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돌아올 곳은 바로 하나님뿐이니라(31:14)

이슬람의 기본 원칙과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명령하지 않는 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과 존경과 배려는 의무다. 비록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명령한다 해도 자식은 다른 형태로 부모에 대한 일상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부모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케 하여 나를 불신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를 따르지 말되 현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를 향해 회개하는 자의 길을 따르라 그 후 너희는 내게로 귀의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일들을 알려 줄 것이니라 (31:15)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금전적인 도움도 드려야 한다. 비록 부모가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할 일은 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부 바크르의 딸 아스마(Asma)가 예언자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개종을 하지 않고 아직 이교도로 계시는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자를 찾아가 그분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도님, 이교도인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와 이슬람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제가 이교도인 저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드려야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은 당신의 어머니이시니 잘 모셔야지요.”(부카리 #2477, 무슬림 #1003)

이슬람은 자식들에게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대한 공경과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비록 부모가 이교도일지라도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의 의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음은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순종에 관하여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h)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요람에 있을 때 말을 한 세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는 예수였고 두 번째 아이는 주라이즈(Jurajiz) 시절의 한 이스라엘 어린이였다. 주라이즈는 아무도 없는 격리된 독방에서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그가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예배를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의 요청을 먼저 들어줘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하고 예배를 계속하자 그의 어머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라이즈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와 똑 같은 부탁을 했고 아들 역시 지난번처럼 어머니의 부탁을 무시한 채 예배에 열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찾아와 이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들은 역시 어머니의 부탁보다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라이즈로 하여금 죽기 전까지 줄곧 창녀들의 얼굴만 쳐다보도록 하였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이즈의 독실한 신앙생활을 크게 존중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 창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의를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주라이즈를 유혹하여 나와 불륜의 성관

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녀는 주라이즈가 자신과 불륜의 성관계를 갖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유혹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창녀는 주라이즈 골방 근처에서 양떼를 치는 한 목동에게 접근하여 자신과 불륜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라이즈라고 소문을 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이즈를 찾아가 그의 방을 파괴한 후 그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라이즈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나를 구타합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길,

‘당신은 이 창녀와 불륜관계를 갖고 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당신은 신앙에 충실한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요?’

이에 주라이즈가 대답하길,

‘그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이즈에게 예배를 허락하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주라이즈는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에게로 가서 그의 손으로 그의 복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니?’

그러자 요람에 누워있던 그 아이가 대답하길,

‘저의 진짜 아버지는 그 목동입니다.’

그 아이의 진술과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이즈에게 키스를 하며 그에게 축복을 기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금으로 예배실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에 주라이즈가 대답하길,

‘아닙니다. 진흙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파괴하기 전 그 모습대로만 지어주세요.’

그러자 그들은 그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람에 있던 아이가 말을 한 세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한 기사가 멋진 말을 타고 모자(母子)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아들도 커서 저런 멋진 기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어머니의 이런 기도를 듣고 그 아이는 젖을 빨다말고 그 기사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성장하여 청년이 되면 저분과 같은 기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한 후 다시 어머니의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아부 후라이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앓고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한 하녀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하녀를 간통한 여자로 매도하면서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이 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이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가 자라서 저런 하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어머니의 이런 기도를 들은 그 아이는 젖을 빨다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자라면 저 하녀처럼 되게 하여 주소서.’

아이의 이런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무슨 일로 그런 말을 하니? 나는 네가 성장하면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지나간 그 기사처럼 되기를 바라는데 너는 그렇게 되는 것을 거절하고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는 간통한 여자,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누명을 받고 있는 그 하녀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무슨 일로 그러는 거니? 나는 네가 그 하녀처럼 고문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여자가 되기 않기를 기도하는데 너는 나의 기도를 거절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멋진 기사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타를 당하고 비난을 받았던 그

하녀처럼 되겠다고 한 것은 그 하녀는 간통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하녀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되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부카리 #3253)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부모에게 거역하는 행위 등 부모에 대한 불효는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내세에서는 물론이지만 현세에서도 불효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두 종류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크게 벗어난 죄와 그 밖의 다른 하나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불효입니다.”(티르미지 #2511, 이븐 마자 #4211)

“하나님께서서는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불효를 금지하셨고, 각자의 권리보호를 막는 것을 금지하셨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셨고, 여아 생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잡담을 싫어하시고 지나친 많은 질문을 싫어하시고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부카리 #5630)

부모에 대한 선행과 친절은 일생을 통하여 두아(du'a)와 예배를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우마르(Ibn Umar)가 예언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래 전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잠을 자기

위해 산기슭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큰 둥근 돌이 떨어져 동물 출입구를 완벽히 막아버렸습니다. 동굴 안에 가친 세 사람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예배하고 간구하는 방법밖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좋은 일과 의로운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길밖엔 다른 도리가 없어.”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나이 든 부모를 모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에 앞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먼저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갔다가 늦게 도착해 보니 부모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저녁에 드실 양젖을 짜 그릇에 담아 들고서 부모님이 깨어날 때까지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마시고 싶어 했지만 아직 부모님께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우유를 달라고 저의 양발을 붙잡고 울며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부모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셨기에 저는 우유를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부모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행한 일을 아신다면 이 함정으로부터 저희를 구해주소서.”

그러자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바위가 조금 옆으로 비껴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좁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금화 120 디나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바치려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나의 처녀막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두려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내면서 내가 주었던 돈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그 여인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행한 것을 아신다면 이 함정으로부터 저희를 구해주소서.’

그러자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바위가 조금 더 옆으로 비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출구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몇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마지막 날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중에 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금을 저의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나타나 그가 받지 않은 급여를 달라고 하여 그의 돈으로 길러놓은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와 하인들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어리둥절하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비웃지도 말고 놀리지도 마세요. 저는 그날 받아가지 않았던 일당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모두 당신의 것이에요. 그러자 그 근로자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의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그 근로자를 위하고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신다면 저희가 이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러자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서 입구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부카리 #2152)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 보살핌과 친절 그리고 효도는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슬람은 가르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우마르(Abdullah bin Umar)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속죄를 할 수 있습니까?”

예언자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이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숙모는 생존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외숙모를 잘 모셔야지요.”(티르미지 #1904, 이븐 히반 #435)

이슬람법에서의 외숙모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위에 언급된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어머니의 자매는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지요.”(부카리 #2552)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 특히 어머니의 권리는 이슬람법과 가르침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친척 그리고 이웃으로써의 여성

이슬람법이 언급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는 남성의 권리와 같다. 공익을 위한 복지는 남녀가 서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슬람 사회제도의

특징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는 남녀 신앙인들을 비유한다면 한 몸과 같습니다. 몸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열이 나며 아프게 되지요.”(무슬림 #2586)

“믿는 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 주는 단단한 건축물과 같지요.”(부카리 #467, 무슬림 #2583)

숙모, 고모, 질녀, 조카 등 어떤 형태의 친척이든 여성은 친절할 예우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꾸란은 언급하고 있다.

너희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지상에서 해악을 퍼뜨리고 혈연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요(47:22)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친인척 관계를 단절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무슬림 #2556)

“가난한 자에 대한 한 번의 자선은 한 번의 자선에 불과하지만 가난한 친척에 대한 한 번의 자선은 두 번의 자선이지요. 그 중에 한 번은 친인척간의 유대를 연결해 주는 자선입니다.”(티르미지 #658, 이븐 마자 #1844)

만일 한 여성이 이웃 무슬림이라면 그녀는 두 가지 권리를 갖는다. 하나는 이슬람의 권리요 다른 하나는 이웃의 권리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것에 견주하지 말라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과 고아와 불쌍한 사람들과 이웃 친척과 친척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동료와 방랑자와 너희의 오른 손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느니라(4:36)

이슬람은 이웃에게 친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웃을 돌보고 친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이 법적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부카리 #5668)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세 번이나 말하자 누구 질문을 하였다.

“사도님,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이웃에게 친절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부카리 5670)

아스파하니(Asfahani)가 Hilyatul Awliya에서 탈하(Talah)가 말한 것을 전하고 있다.

“어느 날 밤 우마르 빈 카탐(Umar bin al-Khattab)이 집을 나가기에 나는 그가 그 밤에 무엇을 하려는지 보려고 그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어떤 집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와서는 다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첫 번째 집을 가보았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게도 장님이자 불구자인 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나를 돌보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후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탈하는 혼자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마르의 행적을 조사해야

만 되지?

이 말씀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과부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하는 자와 같고, 앓지 않고 서서 예배하는 자와 같고, 단식을 깨뜨리지 않고 단식하는 자와 같습니다.”(부카라 #5038, 무슬림 #2982)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슬람은 14세기 전부터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 왔다. 여성에 대한 험담과 조롱, 특히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명예를 지켜주는 법은 현대 법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슬람 법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용서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슬람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6. 이슬람 여성에 대한 오해

이슬람 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이슬람 언론매체와 반이슬람 단체와 선교사들이 악의적으로 이슬람과 무슬림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슬람의 본질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이슬람에서 빛나간 일부 사건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슬람 여성들은 과거 14세기 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여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슬람법이 여성의 명예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여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하여 몇 가지 답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위상을 요약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7. 이슬람의 일부다처

일부다처(polygyny)란 두 명 이상의 부인을 동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다부다처(polygamy)란 남편은 2명 이상의 부인을 그리고 아내는 2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을 말하며, 일처다부란 여자가 2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있어왔던 흔히 볼 수 있는 결혼문화였다.

일부다처는 이슬람법이 허용하는 결혼문화다. 일부다처는 옛 유대인들(Hebrews)을 비롯하여 고대 이집트인들, 그리스인들, 페르시아인들, 아시리아인들, 일본인들, 힌두교인들, 러시아인들 그리고 독일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되었던 결혼문화다.

꾸란 이전의 모든 종교들은 제한 없는 일부다처를 허용하거나 간과하거나 용서하였다. 모든 경전들 중에서 구약성경이 일부다처를 합법화하고 허용한 것이다. 성경에 등장한 예언자들의 결혼문화를 들여다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예언자 아브라함은 2명의 부인을 두었고,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다윗 왕은 99명의 아내를, 솔로몬은 1천 명의 아내(이중 3백 명은 노예 여성)를 두었다. 예언자 모세를 통해서 소개된 구약성경 어디에도 부인의 숫자를 제한한 곳은 없다. 탈무드 시대에 들어와서야 탈무드를 편집한 학

자들이 부인의 숫자를 결정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일부 유대 학자들은 첫 부인이 불임이거나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두 번째 아내를 두도록 하였고 다른 유대 학자들은 일부다처를 금지하였다.

신약성경에 등장한 예수는 모세 율법을 따르고 모세 법을 완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왔다. 일부다처를 금지하는 조항은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볼 수 없다. 기독교에서의 일부다처 금지법은 기독교의 한 분파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 본래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도 일부다처를 취한 사례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국왕 디사메트(Ditharmet)는 2명의 아내를 두었고, 프레데릭 왕(Frederick II) 역시 교회의 허락을 받아 2명의 아내를 두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부다처 금지는 교회 성직자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본래의 예수교에는 일부다처 금지법이 없었다. 처음으로 개신교를 창설한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성직자는 여러 경우에 있어 일부다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주창하였다.

일부다처는 이슬람 이전 아랍 부족사회에서 보편화 된 결혼문화였다. 구약성경에서 일부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인의 숫자도 제한이 없었다.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꾸란에 근거한 이슬람법은 4명 이하의 부인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미 4명 이상의 부인을 두었던 자들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4명 이상을 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하여 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좋은 여성 중에서 둘 또는 셋 또는 넷과도 결혼해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된다면 한 여성의 부인만 두라 너희 오른 손이 소유한 여인과 결혼해도 되나니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니라.(4:3)

부인을 4명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2명 이상의 부인을 둘 경우 부인들에 대한 공평성을 조건으로 하면서 공평성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일처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예언자께서는 편애를 금지하셨다.

“두 명의 아내를 둔 자가 두 아내에게 공평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날 그는 몸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로 올 것입니다.”(아부 다우드 #2133, 티르미지 #1141)

공평이란 생활비, 주택, 재산 분할, 선물 등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랑과 애정과 보살핌과 같은 정신적 공평도 뒤따라야 한다. 인간은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너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절대로 아내들을 공평하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한 부인에게 치우쳐 다른 부인들을 매달린 여인처럼 만들지 말라 만일 너희가 화해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용

과 자비가 있을 것이니라(4:129)

신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예언자의 부인 아이샤는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께서는 부인들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여, 이것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당신만이 갖고 있고 저는 그렇지 못한 제 마음의 감정을 비난하지 마소서.”(아부 다우드, 티리미지)

성교불능의 남자는 여성의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결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내와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남자는 다른 부인을 둘 생각을 말아야 한다. 미혼 남자가 아내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다. 다음은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꾸란의 내용이다.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능력을 주실 때까지는 결혼을 자제할 것이니라.(24:33)

일부다처제가 여성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부일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들여다보자. 성매매와 매춘의 범람 그리고 이혼의 통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1)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이고 남편은 자식을 두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불임의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임의 아내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을 두어 자식을 가질 것인가! 불임의 아내와 이혼할 경우 그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쪽이 여성에게 더 유리한가!

2) 아내가 만성적인 질환으로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울 경우 아내와 일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여 공평하게 두 부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명예를 지켜주며 보호하는 것과 만성병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 어느 쪽이 여성에게 더 유리한가!

3) 일부 남성중 중에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너무 높아 성적 욕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자들이 있다. 이런 남자의 성적 욕구를 한 여성이 합법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생리기간이나 출산 전후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여성이 남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남자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불륜을 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아내를 두어 합법적인 성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불법적인 성적 타락을 막아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4)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민전쟁이나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남성의 숫자가 여성의 숫자보다 절대적으로 부

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사들이 대거 사살되면서 결혼할 연령에 있는 남자가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월남전, 구소련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10년 전쟁, 이란-이라크 간의 10년 전쟁, 쿠웨이트 해방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전쟁 등에서 결혼 연령기에 있는 남자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로써 여성의 숫자에 비해 남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짝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일처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짝이 없는 이 젊은 여성들의 합법적인 성생활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이 여성들의 일생을 누가 보살피고 그들의 성적 욕구를 누가 충족시켜 줄 것인가! 내연의 처나 밤의 여자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여성끼리 동성애를 하도록 팽개칠 것인가!

이것은 사회문제의 큰 요인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의 합법적인 성생활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 아내로써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내연의 처로 팽개칠 것인가! 아니면 성욕을 충족하고 생활비를 위해 길거리의 창녀촌으로 가게 할 것인가! 위에 언급된 특별한 환경에 처할 때 합법적인 두 번째 부인으로 살면서 공평한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것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일부일처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불륜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거나 묵인하고 있다. 일부일처의 결혼만 합법화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연의 처, 여자친구, 경호원이란 명목으로 불륜을 용인하고 여성을 성의 노리개로 삼고 있다. 이 여성들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불법적인 성관계로 임신을 한 여성은 누구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태어난 사생아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런 사회에서는 불륜으로 인한 낙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법에 따라 둘째, 셋째, 넷째 부인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 여기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법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한 성생활 외에는 어떤 형태의 성관계도 단호히 금지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남녀 간의 불륜관계를 차단하여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를 성의 타락으로부터 보호한다.

예언자께서는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바람둥이 한 젊은이의 불륜과 간통을 자제시키셨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딸이 간음과 간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는 아무도 없다.

한 남자가 예언자를 찾아와 부탁을 하였다.

“사도님, 제가 간음과 간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십시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거칠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질문을 하셨다.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입니까?”

그가 대답하길,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당신을 위해 헌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그에게 다시 물으셨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머니가 불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당신의 딸들을 위해서입니까?”

그가 대답하길,

“아닙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딸들이 불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당신의 고모들을 위해서입니까?”

그가 대답하길,

“아닙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모들이 불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당신의 외숙모들을 위해서입니까?”

그가 대답하길,

“아닙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외숙모들이 불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가 대답하길,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자께서는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 후 순수한 마음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아흐마드 #22265)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지요.”(부카리 #15, 무슬림 #44)

이슬람사회에서의 일부다처는 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은 합법적인 절차와 공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 후 남자는 생활비를 비롯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 모든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책임을 져야한다. 모든 자식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슬람법은 일부사처를 허용하면서 일처다 부는 왜 허용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여성의 타고난 천성과 육체적 이유 때문이다. 이 세상 거의 모든 남자는 타고난 천성과 육체적 힘으로 가정을 다스려 나갈 수 있다. 한 여성이 두 명 이상의 남편을

둘 경우 누가 가정의 최후 책임자가 될 것인가! 남자들은 지배하려는 천성 때문에 부인과 가정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이다. 가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남자는 속성상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성적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가정이 가능하겠는가! 이 여성은 매년 이 남자 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누가 될 것인가!

남자들이 이 여자와 순결을 시키면서 일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답은 분명하다. 남자들의 속성상 불가능할 것이다. 서구의 일부 사상가들은 그들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부다처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상가 구스타브 르 봉(Gustav Le Bon)은 아랍문화(Arabic Civilization)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부다처는 성적 타락으로부터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내연의 처, 성매매 여성, 매춘 여성들의 양산을 차단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생아들이 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안니 비산트(Annie Besant)는 인도 종교들(Indian Religious)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 그의 마음이 일부다처에 가 있는 자라고 읽었다. 신약성

경은 교회 성직들에게만 일부일처를 요구하고 그 밖의 남자들에게는 금지하지 않았다.

인도의 고대 종교서도 일부다처를 허용하였다. 자신들의 종교서도 일부다처를 허용하면서 이슬람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부사처에 대하여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한편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불륜을 위한 매춘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면서 이슬람의 제한된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이슬람의 일부사처를 비난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서구세계를 좀 더 가까이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일처만을 위해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정직한 남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한다면 일부일처법이 적용되고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모든 여성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지만 불륜이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에 일부사처가 허용되고 있는 이슬람사회에서는 모든 여성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된다. 일부일처의 서구사회에서는 불륜관계에 있는 모든 여성들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이 평등권은커녕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지만 이슬람사회에서는 이슬람법에 의해 불륜이 엄격히 차단되고 있어 내연의 처나 성매매 여성이 설 땅이 없고 따라서 사생아가 있을 수 없다. 어느 쪽이 더 여성의 권리와 명예가 보장되고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남자는 성적 욕구가 충족되면 함께 했던 성매매 여성을 찾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아무런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 여성은 남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준 수단에 불과하고 남자가 필요할 때 일시적인 동행자에 그칠 뿐 기본권마저 갖지 못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다처, 간통, 매춘은 모두 나쁘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비무슬림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무슬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한다.”

영국의 저명한 학자 자와드(Jawad)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부다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국은 공정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도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 2백 명에 달하는 독신녀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청춘을 잃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를 먹고 나면 씨를 버리듯이 일부일처제도가 이들 여성들을 내던져 버려졌다.”

프랑스 국회의원이었던 모비나르(Mobena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결혼연령에 달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면 프랑스에는 현재 남편을 찾을 수 없는 여성이 2백 5십만 명이나 된다. 솔직히 말해 나는 어머니가 되지 않는 여성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질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법이던 간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타고난 인간적 본능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1959년 유엔이 발간한 특별 보고서 내용이다.

“전 세계는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는 사생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일부 국가에서 그 숫자가 6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파나마 경우 사생아 탄생 비율이 전체 탄생 인구의 75%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4명 중 1명이 사생아로 태어난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생아 탄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라틴 아메리카로 나와 있다.”

이 발간물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슬람 국가에서의 사생아 탄생 숫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 발간물 편집자의 말에 따르면 이슬람국가들은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적 타락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부사처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8. 결혼서약서에서의 보호자의 권위

이슬람법은 건전한 결혼을 위해 여성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아이임(ayyim: 이혼녀 또는 과부)에게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처녀는 그녀와 협의가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질문을 하였다.

“사도님, 그녀의 허락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의 침묵도 허락을 의미하지요.”(부카리 #4843, 무슬림 #1419)

만일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여성은 무슬림 법관에게 본 사건을 제의하여 결혼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 카담의 딸 칸사(al-Khansa)라는 여성이 사도를 찾아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바라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언자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예언자께서는 그 결혼의 무효를 선언하셨다. (부카리 #6546)

이슬람법이 요구하는 두 번째 요건은 처녀 결혼의 경우 보호자의 허락이다. 보호자는 아버지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할아버지, 삼촌, 형제, 성숙한 아들 순이며, 지역의 지도자에서부터 국가 통치자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결혼서약에 반드시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호자 제도는 결혼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보호자의 역할은 신랑이 진실하고 가족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남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적절한 혼인금(mahr)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두 명의 남자 증인을 세워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여성의 권리와 결혼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보호자가 없는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아부 다우드 #2058, 티르미지 #1101)

“보호자가 없는 결혼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통치자는 보호자가 없는 자들을 위한 보호자입니다.”(아흐마드 #2260, 이븐 마자 #1889)

그러므로 남녀가 눈이 맞아 결혼할 경우 그 결혼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혼하는 여성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만일 남자가 신방에 들어갔다면 그녀는 그로부터 반드시 혼인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통치자는 보호자가 없는 자들을 위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아부 다우드 #2083, 티르미지 #1102)

앞서 언급했듯이 결혼 수락 여부는 여성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보호자의 승인은 단지 딸, 즉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을 뿐이다. 통치자 혹은 지역 지도자가 보호자가 되는 것 역시 결혼의 신성함을 명예로 생각하는 여성의 이익을 위해서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여성의 이익과 복지,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과 법을 제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로 하여금 좋은 남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 같은 마음이다. 보호자의 역할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고 실패하지 않는 결혼이 되기 위해서다. 결혼의 목적은 남녀 간의 영속적인 관계를 확립하여 자녀들을 위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어떤 성적 욕망

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다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와 현실보다는 외적인 풍채에 쉽게 영향을 받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이슬람이 남자 보호자 제도를 둔 것은 여성에 비해 보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남자로 하여금 여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자가 여자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더 잘 아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딸과 일생을 함께 할 배우자가 될 남자의 성품과 생활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남자인 아버지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버지는 아내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은 후 딸의 배우자 선정을 승인한다. 만일 적절한 신랑감이 청혼을 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호자가 거절할 경우 후견인의 임무는 법정 소송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머니 쪽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이 되며, 만일 가까운 친척도 없을 경우에는 무슬림 판사가 후견인, 즉 보호자가 된다.

딸의 배우자를 찾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예언자의 말씀 안에 있다.

“딸에게 청혼이 들어오거든 그의 종교와 성품과 품행을 보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그에게 딸을 결혼시키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상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티르미지 #1085)

9. 가족을 위한 남자의 경제적·도덕적 책임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자신의 모든 역량으로 여성을 부양해야 하느니라(4:34)

본 절은 가족을 위한 경제적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남자는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강한 체력을 갖고 탄생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생리를 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

남자는 여성의 보호자이면서 가정의 책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목동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활의 날 보호자로서 그리고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했는지 질문을 받는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나약하고 연약하며 정서적이고 사회적이어서 아이들 양육과 가정을 꾸러감에 있어 남성보다 탁월하고 능률적이다.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자녀 보육과 양육 그리고 가정사로 인한 노동 때문에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정의 생계비는 전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듯 남자의 생활능력과 책임감은 여성의 정신 생활과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이 알려진 이집트 작가 압바스 마흐무드 아카드(Abbas Mahmud

al-Akkad)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성은 매우 특별한 정서적 기질을 갖고 있다. 유아 혹은 어린이들의 반려자는 어린이의 정신과 반려자 사이의 유사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바로 어머니가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반려자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야 하고, 어린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하고, 어린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아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의 요구를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의 정신과 정서를 많이 갖고 있는 어머니, 즉 여성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스 리버렐 박사(Dr. Alex Liberelle)는 남자와 여자의 구조적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자궁과 임신이라는 성적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교수법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기본적인 특징이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조직은 다르다. 신체의 성분들도 역시 서로 다르다. 어떤 내분비선은 단지 특정 성(性)에 적합한 분비액을 분비한다. 여성은 여성 몸 안에 있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화학적 물질 성분이 남성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남녀 간의 완전 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다른 차이점들을 무시하고 있다. 남녀 완전 평등을 외치는 주창자들은 동일한 형태의 직업과 책임과 지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불합리한 이런 요구는 여성의 본성과 육체적·정신적·정서적인 특징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각 조직세포가 남

성의 호르몬에 의해 남성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각 조직 세포는 여성의 호르몬에 의해 양육된 여성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차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신체 각 기관이 서로 다르고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확하게 말해서 여성과 남성의 중추신경 계통의 기능은 서로 다르고 따라서 역할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성이 갖고 있는 자연법칙과 운동에 순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자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남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선천적인 성이 갖고 있는 기능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성으로 전화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뼈와 근육의 구조도 크게 다르다. 남성의 뼈와 근육은 여성의 것보다 더 무겁고 더 강하다. 힘든 노동력이 필요한 일을 남녀평등이란 명분으로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는다.

11. 명예살인

이슬람은 생명과 재산과 명예 이 세 경우가 있다. 일부 국가는 가족의 여성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감지될 때 확실한 증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여성을 살해하는 남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일부 사례가 있다. 서구 언론이 이런 사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답은 간단하다. 이슬람법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법을 자신의 마음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륜에 대한 증거 없이 처벌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슬람에서의 증거주의는 매우 엄격하다. 그러므로 명예살인은 이슬람법 위반이다. 사법부가 사건 전모를 조사하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후 판사의 판결에 따라 법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예정된 살인이었다면 동등한 처벌권이 허용된다. 명예살인은 일부 국가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부족사회의 전통을 묵인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행하고 부당한 폐습일 뿐이다. 이슬람법이 확립되어 집행된다면 간통과 살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무슬림들

은 법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가라앉힐 것이다.

12. 이혼

이슬람 이전의 이혼은 남성이 전횡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였다. 아내에게 피해를 입히면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아내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남성위주의 부당한 이혼에 대해 여성이 보호받을 권리도 없었고 이에 대항할 아무런 제도도 없었다. 꾸란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무효화하고 있다.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은 허락되나 그 후에는 두 당사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재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합당한 조건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해야 하느니라(2:229)

결혼을 좀더 유지시키는 한 방법으로 예언자의 전통인 순나를 따르는 무슬림 남성은 얼마동안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지 아니했지만 이혼하는 그 달에 아내의 생리가 종료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은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양 가문의 중재를 통해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간에 화해가 되지 않고 이혼을 해야만 된다면 아내는 세 번의 생리기간을 기다린다. 이 기간에 남편은 아내와 재결합할 수도 있

다. 이 기간을 가리켜 첫 번째 이혼과 재결합 단계라 일컫는다.

이 기간이 지나고 아내가 갈 길을 가도록 하면 첫 번째 이혼이 성립된다. 이때부터 이혼한 여성은 자유로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고 쌍방이 원할 경우 이혼한 남자도 이혼한 전 부인과 새로운 결혼계약에 의해 다시 결합할 수 있다. 그런 후 또 이혼을 하려한다면 역시 여자는 세 번의 생리를 기다리고 이 기간에 또 재결합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이혼할 경우 두 번째 이혼이 된다. 두 번 이혼에 두 번 재결합이 된 후 세 번째 이혼은 마지막 단계다. 네 번째 재결합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세 번째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이혼한 경우야야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가족과 결혼의 신성함과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혼하기 전 여자가 세 번의 생리를 기다리는 것은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임신이 된 경우 여성은 출산한 후에야 다른 남자와 결혼이 가능하다.

이혼은 이슬람이 가장 혐오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혼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다. 왜냐하면 관련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혼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쌍방 혹은 어느 한 쪽에 많은 피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혼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슬람법은 우선적으로 이혼을 피하고 화해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 내용이다.

만일 한 여성이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냉대를 두려워 할 때 그 둘 사이의 화해는 죄가 아니며 화해가 최선의 방책이니라(4:128)

너희 부부 사이에 헤어질 우려가 있다면 남자 가족에서 한 사람 여자 가족에서 한 사람씩 중재자를 선임할 것이니라 만일 부부가 화합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마음으로 돌려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능통하시느니라(4:35)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혼 절차를 여자보다는 남자로 하여금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아내와 가족을 위한 재정적·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지에 대한 책임도 남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남자로 하여금 이혼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피해와 손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파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이혼함으로써 아내에게 지불했던 혼인금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 이혼소송비, 다른 여성과 재혼할 경우 들어가는 혼인비용 등을 또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다보면 남자는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여 이혼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부 간에 말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가 감정을 더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순간의 감정이나 오해 또는 견해차이로 이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혼은 서로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밖에 없을 때 마지막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슬람법은 남편이 신체적으로 또는 언어폭력으로 학대를 할 때는 아내에게도 자신의 결혼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이 성립될 때 여성은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다.

- 1) 남편이 성교불능이거나 남자의 기능을 못할 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성생활을 거부거나 여성의 법적 성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 3) 결혼 후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을 때
- 4) 아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또는 남편과 성생활을 함께할 마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성병이나 생식기 질병이 있을 때

이 밖에 여러 경우에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인내의 한계를 넘을 때라든지 남편이 너무 혐오스러워 부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여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이혼을 결혼무효 선언, 즉 쿨아(khul'a)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혼인금을 돌려주고 일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관할권 무슬림 판사가 이 사건을 심사하여 여성의 요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

13. 유산상속에 대한 여성의 권리

하나님께서 자녀의 상속재산에 관한 말씀을 하셨나니 아들에게는 두 명의 딸에 해당하는 양을 주어야 하느니라(4:11)

이슬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유산분배에 있어 이슬람은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부모의 자식들인데 여자는 남자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유산상속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꾸란과 순나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선입관을 갖지 않고 지식을 탐구하는 자라면 그들의 주장과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식들을 비롯한 아내 및 친인척들까지 고인이 남긴 유산에 대한 몫을 결정하여 두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남자에게도 귀속되고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여자에게도 귀속되나니 남긴 것이 적던 많던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 있느니라(4:7)

하나님께서서는 유산에 대한 여성의 몫을 세 가지 형태로 말씀하셨다.

첫 번째 형태: 여성은 남자와 동일한 몫을 받는다.

두 번째 형태: 여성은 남자와 동일한 몫 혹은 약간 적게 받는다.

세 번째 형태: 여성은 남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받는다.

위에 근거하여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은 남자의 절반이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의 유산을 받는다. 왜냐하면 남성은 여자 아이를 비롯하여 자매, 아내, 어머니 그리고 가족생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계산하여 보면 여성에게 유리하다. 특히 부모의 유산이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독자들은 이슬람에서의 유산상속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슬람 전문서적들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이 전문 서적들은 꾸란과 순나에 근거하여 고인과 관계된 친인척들에게까지 얼마의 몫이 상속되고 얼마의 재산이 분할되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사회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슬람법은 크고 작은 것을 망라하여 인간생활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규정과 규범을 두고 있다. 살아 있을 때 사는 방법과 그의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죽은 후 그가 남긴 재물까지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규범을 두고 있다. 살아 있을 때는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은 후 그가 남긴 유산과 재산은 이슬람법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고인이 남긴 재산 중

에서 고인이 원하는 대로 집행되는 것은 3분의 1만 가능하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꾸란에 근거하여 유산상속법에 따라 분배된다.

예언자의 교우인 아비 와까스(Abi Waqqas)의 아들 싸우드(Sa'ad)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는데 딸 하나밖에 없었다. 그가 병중에 있을 때 그의 재산 대부분을, 최소한 절반 이상을 자선으로 바치겠다고 하자 예언자께서 이를 금지하시고 3분의 1만 허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분의 1도 많아요. 당신의 상속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그들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당신은 당신이 자선으로 지출한 그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 아내의 입에 밥 한 입을 넣어 준 것으로도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부카리 #2591, 무슬림 #1628)

다른 문명사회에의 유산상속법은 강자의 입맛에 맞추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지도자가 바뀌고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하면 상속법은 또 바뀐다. 영속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런 사회는 노동과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법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슬람은 다르다. 노동과 경제적 책임은 모두 남자의 몫이다. 특히 딸들이 결혼할 때까지 그녀들에 대한 생활비는 모두 남자의 책임이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책임이다.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이나 가까운 남자 친척이 그녀를 돌본다.

그러므로 남녀에게 경제적·재정적 의무와 책임을 평등하게 요구하지 않고 공정한 혹은 평등한 유산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요구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여성 상속자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남성 상속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에서 보듯이 이슬람법은 여성에게 최소한 남성의 절반 혹은 동일하게 상속 권한을 보장한다.

구스타브 르 봉은 아랍문명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꾸란에 언급된 유산상속의 원칙은 무척 정당하고 공정하다. 그래서 꾸란을 읽어본 독자라면 이슬람 유산상속에 관한 정의와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꾸란에 언급된 상속법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여 보면 이슬람법이 여성에게 허용하고 있는 상속권한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슬람법을 모르는 서구인들이 무슬림 여성들은 유산상속에 있어 무슬림 남성들에 의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피살자에 대한 보상금도 이슬람법은 같은 맥락으로 본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경제적·재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남자와 의무와 책임이 없는 여성이 피살되었을 경우에 받는 보상금(blood-money)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서구사회에서 피살자의 연령과 직업과 급여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14. 보상금(blood-money)

고의적 살인의 경우 피살자의 상속인이 갖는 권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동등하다. 그러나 과실 혹은 실수에 의한 우발적 사망사건일 경우에는 다르다. 여성 사망자에게 지불되는 보상금은 남성 사망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절반이다. 그 이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가 사망했을 경우 여성보다 유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손실피해가 무척 크기 때문이다. 생명은 남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런데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여성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은 아버지가 채워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과 애정을 잃게 되면서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채워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이미 언급했듯이 경제적 손실이다. 보상금은 사람에게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아니고 가족이 입게 될 최소한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15. 여성의 증언

두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며 두 남자가 없을 경우는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선택하여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라 이것은 여성의 한 증인이 잘못된다면 다른 여성의 증인이 기억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2:282)

꾸란은 증인에 있어 남자 두 명 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민감한 감정, 동정심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호의는 말할 것도 없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도 남자에 비해 훨씬 많고 강하다. 이러한 타고난 여성의 성품이 임신, 출산, 육아, 양육의 역할과 여성의 보편적인 삶을 갖게 한다.

어떤 사건에 연루될 때 여성은 이러한 성품으로 인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동정심에 의한 감성적인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여성의 동정심이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덮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자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은 생리 중에 있을 때 또는 출산 전후에 성격변화가 많다. 이 기간에는 기억력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여성이 목격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동정심으로 인하여 사실을 감추려 할 때 다른 여성의 증언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의심스러운 증언이 있을 때 이슬람법은 소송절차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명의 여성 증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심을 줄여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에 대한 비율을 남성 1명 대 여성 2명으로 한다는 것은 여성의 인격과 지성과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여성의 처녀성이나 여성의 성적 결함 등에 관한 설명과 해명 등에 관한 증언에서는 여성 한 명의 증언도 받아들인다. 두 명의 여성이 필요한 것처럼 사건에 따라서는 두 명의 남자 증인이 필요한 경

우도 있다. 금전거래, 즉 대여와 차입 등에 관한 금전거래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증언은 남자 한 사람만의 증언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반듯이 두 명의 남자 증언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사안에 따라 2명의 남자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여성 1명 증인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2명의 여성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슬람법에서의 증언은 특혜나 명예가 아니고 부담이요 짐이다. 법정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꾸란은 증인 승낙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증인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거절하지 말라(2:282)

본 절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것을 싫어한다. 법정에서 불려나가야 하고, 사실 증언을 위해 선서를 해야 하고, 쌍방 변호사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금전적 부담과 정신적·신체적 고통도 감당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 사실이 밝혀질 때 위협도 받을 수 있고 평생 동안 원수가 되거나 보복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은 여성에게 가능한 많은 짐을 덜어주려고 한다. 특히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비롯하여 육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뒤따르는 군대생활 등

육체적 고통이 뒤따르는 힘든 노동으로부터 여성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전관련 문제에 있어 남성 1명의 증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고의 금전적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명의 남자 증인이나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남녀 각자의 증언이 모두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사건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아내를 불륜관계로 고발했을 때 남편이 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때 불륜 사실을 부정하는 아내의 증언은 남편의 증언과 동일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자신의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자신 외에는 아무 증인도 내세우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네 번 증언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는 정직한 자 중에 들게 되느니라. 그의 다섯 번째의 맹세에서 거짓말이 들어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자의 거짓증언을 네 번 증언하면 그녀에게는 벌이 면제되며, 다섯 번째로 남편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녀에게 있을 것이니라 (24:6-9)

16. 남성 보호자(mahram) 없는 여성의 여행

예언자는 여성의 여행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성은 보호자(mahram) 없이 혼자 여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외출중이어서 여성 혼자 있는 집안에는 남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 남자가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사도님, 저의 아내는 메카 순례(hajj)를 가려하고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 아내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하시오.”(부카리 #1763)

이처럼 여성의 안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이슬람은 여성이 연령에 관계없이 그리고 미혼과 기혼을 막론하고 여행을 할 때는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마흐람(mahram: 보호자)이란 아버지를 비롯해서 남자 형제, 장남, 삼촌 혹은 성년이 된 조카와 같이 결혼 대상이 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친인척 남자를 말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 규범이 여성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규범의 목적이 여성의 여행을 제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을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위협이나 위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

기 위해서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이슬람을 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여행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성은 신체 구조상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나약하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보다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수성이 더욱 예민하다. 생리 중에 있거나 임신 중일 때는 더욱 그렇다. 젖먹이 아이가 있거나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여행은 보호자가 동행해야 보호를 받고 여성의 권리와 명예가 보장된다.

여성이 불량배로부터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남성의 의무요 책임이다. 남성미가 넘쳐흐르는 한 남자가 여행가를 노래하면서 여행자들이 탄 짐승들과 짐을 가득 실은 짐승들의 힘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예언께서 이 남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안자샤아, 서서히 가요. 그대는 약한 유리 위에서 재촉하고 있어요.”(부카리 #5857)

본 언행록에 언급된 ‘약한 유리’란 여자의 선천적인 언약함 허약함을 의미한다. 낙타에 타고 있는 여성들은 언약하고 허약하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우므로 낙타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고 부드럽게 몰아 언약한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본 언행록의 의미다.

사악한 마음을 품은 남자들 그리고 폭력적인 남자들은 성폭력을 가할 수 있고 사자가 홀로 있는 짐승을 사냥감으로 덮치는 것처럼 사악한 남자들은 홀로 여행하는 여자를 노리는 경우도 있다. 전 세계, 특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이슬람 국가 외에는 도처에 금품을 노리는 폭력배나

날치기 범죄자들이 허다하다. 성매매용으로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여성으로부터 하여금 보호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성에게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마흐람’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남성의 의무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여성이 여행할 때 호위하는 전통이나 관습이 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의 보호자, 즉 마흐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호위하는 것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그들 문화에서는 이슬람에서의 보호자와 그들의 보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선상에서 본다면 여성 혼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마흐람으로 하여금 여성을 호위하는 것은 여성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다.

17. 여성의 노동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건전한 가정을 꾸미도록 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성에 따른 각각의 능력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서로 협력하여 행복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다. 남자에게는 보다 강한 힘과 견디어 낼 수 힘을 주어 가족을 보호하고 지구촌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였으며 여자에게는 다른 기능을 주어 임신과 출산과 양육과 가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유연함, 동정심, 사랑, 친절 등 부드럽고 유연한 성품을 주어 태아와 어린이의 정서적 발육에 필요한 정신적 양분을 제공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남녀 각자의 선천적인 특성에 따라 남자는 밖에서 노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할 양식을 얻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더 능률적이며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며 가사를 돌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더 능률적이다.

그렇다고 이슬람법이 여성의 일할 권리를 빼앗거나 박탈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성의 명예와 인격이 존중되는 분야에서는 여성의 일할 권리가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다. 사업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계약과 거래도 마찬가지다. 물론 조건도 뒤따른다. 이슬람법이 허용하는 건전한 사업이어야 하고 건전한 거래라야 한다.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자식과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여성전용 직장이어야 하며 남녀가 뒤섞여서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뒤섞여 일을 하다보면 남자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고 그것이 성적 괴롭힘이나 학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남자는 여자와 격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두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티르미지 #1171)

다음은 어떤 사람이 예언자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사도님, 저의 아내가 메카 순례를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입영을 하지 말고 아내와 함께 순례를 하시오.”(부카리 #4935, 무슬림 #1341)

영국의 저명한 여류작가 쿡(Cook)는 새로운 메아리(new echo)라는 그녀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자들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한다. 그래서 여성은 본성과 배치되는 어떤 것에 유혹된다. 남녀공학을 하는 사회에서에서 그렇지 않는 사회보다 사생아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여성들이 외부에서 일을 한다면 여성의 본성과 특성에 적합하고 부합되는 일이거나 직업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겁고 힘든 일은 피해야 한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적합한 일이라면 그 일은 남성으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한다.

여성이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과 친인척 남성들이 그 여성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여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자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에게는 자녀양육과 가정교육에 대한 고귀한 책임이 있고 가정살림을 이끌어가고 가족 구성원들을 보살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영국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인물들 중 한 사람인 영국의 저명한 학자 사무엘 스마일(Samuel Smiles)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성으로 하여금 공장과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게 된 제도는 국부(國富)와는 관계없이 가정의 따뜻한 삶을 파괴하고 말았다. 가정의 구조와 토대를 흔들어 놓았고 가족의 근본적인 기둥들을 무너뜨려 놓았다. 가족 구성간의 관계도 핵가족으로 분열시켜 버렸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빼앗아가고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아갔다. 결국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잃게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어머니의 위상과 가치는 떨어지게 되었다. 어머니의 진정한 직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녀양육, 가정교육, 가족 구성원 보살핌 그리고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아내가 밖에서 노동에 시달리게 되면 부부간의 사랑도 식어가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없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 영부인은 여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여성이 있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는 가정입니다. 여성의 주요 임무와 책임은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부인은 남아프리카 수도에서 열린 여성 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여성의 주요 임무와 책임은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경제를 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우리 여성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남자를 만들고 건전한 세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여성이요 자랑입니다.”

18. 히잡(hijab)

히잡은 언론매체에서 떠들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프랑스 같은 일부 세속국가들과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터키 같은 나라에서 더욱 그렇다. 이 문제에 깊숙이 파고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고 여성의 순결을 더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주는 가장 정숙한 의상은 어느 것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히잡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외출을 할 때는 겹옷을 입으라고 이르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구별되고 시달림을 받지 않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

로운 분이시니라(33:59)

본 절은 노출되는 살결을 가려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남자들의 시선과 유혹을 피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존경받는 이슬람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극적인 의상은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일부 남성들에게 성적 유혹을 유발시켜 성폭행에 이르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일부 세속 국가에서는 여성의 미와 자극적인 의상을 상품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상품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슬람은 남성들에게 성적 유혹을 유발시키지 않고 여성의 순결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성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꼭 맞는 옷차림보다는 약간 느슨하고 평평한 옷차림을 권장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고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의 아버지와 그녀의 아들과 남편의 아들과 그녀의 형제와 그녀 형제의 아들과 그녀 자매의 아들과 여성 무슬림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과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살결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자들이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니라(24:31)

본 절은 마흐람(mhram)이라고 하는 여성의 보호자의 범위와 남녀가 눈이 마주쳤을 때는 서로가 눈길을 아래로 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남녀간의 눈길을 피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요 성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 이전 아랍 여성들이 성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몸매와 옷차림을 하고 발걸음 소리를 내어 남자들을 유혹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의바른 언행과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너희 가정에서 머물며 옛 무지의 시대처럼 치장하여 내보이지 말라 그리고 예배를 행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사도에게 복종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가문의 모든 불결함을 제거하여 한 점의 티도 없이 순결케 하셨느니라 **34.** 너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낭송되는 것을 상기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섬세히 아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남녀와 믿음이 있는 남녀와 순종하는 남녀와 진실한 남녀와 인내하는 남녀와 두려워하는 남녀와 자선을 베푸는 남녀와 단식을 행하는 남녀와 정조를 지키는 남녀와 그리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남녀를 위해 관용과 크나큰 보상을 준비하여 두셨느니라. 믿는 남자

이건 믿는 여자이건 하나님과 사도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을 선택하려 함은 온당치 아니 하노라 만일 하나님과 사도에게 거역하는 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방황하는 것이니라(33:33-36)

정숙한 의상과 겸손한 언행을 추구하는 다른 문화에 더하여 이슬람은 순결, 정직, 윤리의 청렴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혼이 허용되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동기와 환경을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는다. 성의 순결과 성윤리의 청렴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종교마다 특징이 있지요. 이슬람의 특징은 하야(haya’a: 겸손, 겸허, 수줍음, 부끄러움입니다.”(이븐 마자 #4172)

나가면서

이슬람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제정한 영원불멸의 신성 메시지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 출발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회복된 종교요 하나님 공동체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념이요 사상이다. 이러한 이슬람의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예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꾸란은 언급하고 있다.

나는 아담의 자손들을 영광되게 하였으며 육지와 바다에서 그들을 운반하여 주었으며 그들에게 좋은 양식을 베풀었으며 내가 창조한 어떤 것보다 인간들을 높이 두었느니라(17:70)

인간은 모두가 아담의 자손들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꾸란의 내용이다.

인간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고 그 둘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많이 두도록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라 너희의 상호권리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친인척간

의 결속을 단절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나라(4:1)

위에 언급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측면과 기본적인 가치와 의무와 책임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차이가 있고,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있고, 지역과 환경에 의한 생활방식의 차이도 있고, 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이가 있고, 업적에 따른 명예의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께서 제정한 신법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실천과 일상생활에의 적용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인간들이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니라(49:13)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축복의 명예를 받을 인간은 피부의 색깔, 사회적인 지위, 남녀 성별, 민족, 체력의 힘, 권력, 건강, 위엄,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믿음 그리고 선행에

있다는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인간들이여, 여러분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랍인이 비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고,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아니며,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정도에 따라 사람간에 우열이 있을 뿐입니다.”(아흐마드 #23536)

이슬람은 사람간의 인위적인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남녀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협력자의 관계로 정립하고 있다.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들이라 그들은 서로 선을 권유하고 악을 금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하나님과 사도에게 복종하노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한 분이시니라(9:71)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녀를 불문하고 너희가 행한 어떠한 일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서로 동등 하니라 (3:195)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남자에게도 귀속되고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남긴 재산은 여자에게도 귀속되나니 남긴 것이 적던 많던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 있느니라(4:7)

본서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밝혔듯이 여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명예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성한 이슬람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리는 의무가 뒤따른다. 의무를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여야 한다. 이슬람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제정한 신법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법보다 신법이 상위법이 되어야 한다. 인정법은 위정자와 입법자들이 당대의 시대가 요구하는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법은 될 수 없다. 현세와 내세를 아울러 다루고 있는 신법인 이슬람을 현세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는 시대적 또는 지역적 인정법 위에 두고 실천할 때 여성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개인을 비롯하여 우익단체나 좌익단체의 정치집단, 일부 종교집단이나 어떤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슬람을 왜곡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의 언행이나 자세를 보고 이슬람의 본질과 진실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둔 라 술루라'(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입니다) 라는 문구만 외치면서 유감스럽게도 이슬람의 의무와 이 문구에 대한 약속이행은 외면하고 있다.

이슬람은 완성된 종교다. 그래서 다양한 모든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종교다.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일생동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는가 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현세와 내세에서 징벌을 받아야 할 무슬림들도 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여 믿음이 약한 무슬림들이 있는가하면 무슬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 자들이 있고 이슬람을 떠나 불신자 수준에 있는 무슬림들도 있다. 그 결과 이슬람 수행에 충실하여 기쁨과 환희를 체험한 자나 이슬람 지식을 추구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슬람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체험했던 기쁨과 행복을 권장한다. 그러나 후자의 무슬림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자의 무슬림과는 반대로 안내한다.

피상적이고 천박한 이슬람 지식은 위험하고 유해하다. 이슬람에 대한 편협적인 상식과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깊이 있고 정통성에 근거한 저서와 번역서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이슬람 학자를 통해서 이슬람을 접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상식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내세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꾸란의 내용이다.

종교는 강요되어서는 아니 되니라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나니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단단한 동아줄을 잡는 자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2:256)

끝으로 모든 영광과 찬미를 오직 만유의 주님께 드립니다.